

第147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10月31日(火)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1990年度豫算(案)(계속)

가. 勞動部所管

審査된案件

1. 1990年度豫算(案)(계속)

가. 勞動部(계속)(質疑).....1面

2. 豫算案審査小委員會構成의件.....27面

3. 1990年度豫算(案)(계속)

가. 勞動部(계속)(質疑).....27面

(14時17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次 勞動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1. 1990年度豫算(案)(계속)

가. 勞動部(계속)(質疑)

(14時19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0年度 勞動部所管豫算(案)을 계속해서 上程합니다.

오늘은 바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平和民主黨所屬 李 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協委員 우선 豫算에 관한 質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委員長님과 先輩委員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豫算案以外의 문제를 몇 가지 質問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朝刊을 보면 勞動部는 勞使關係安定化綜合對策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報道에 따르면 紛糾가 多發하는 소위 紛糾脆弱業體를 500個 선정해서 特別指導監督하고 勞·使·政이 함께 國民賃金福祉委員會를 구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綜合對策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특히 來年度 豫算執行과 무관하지 않은 이러한 綜合政策을 발표하면서 國會가 開會중임에도 불구하고 勞動部가 이에 대한 事前報告를 國會에 하지 않은 채 一方的으로 발

표하는 것이 과연 議政과 行政을 연계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長官께 묻고 만일 이 議事進行에 지장이 있다면 綜合對策은 적당한 시간에 여기서 報告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다음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長官!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綜合對策이라는 것을 저도 오늘 아침 新聞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발표한 적이 없고 그래서 오늘 저도 가 가지고 아침에 公報官들에게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는데 우리 勞動部에서는 그런 것을 발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전에 우리가 勤勞監督課長會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監督課長會議에서 지금 현재 政府의 下半年經濟運用計劃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課長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會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會議에서 勤勞監督課長들한테 정리해서 준 것이 어떻게 報道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公式의으로 발표할 文件이거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무슨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전번에 委員님들한테 報告드린 今年度

施策 등에 대해서 報告書에 다 들어있는 것을 重點으로 발췌해 가지고 우리 勤勞監督課長들한테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李 協委員 예. 그런데 최근 勞動問題에 관한 일련의 報道들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10月27日 勞動部를 포함한 政府의 關係部處 거기에는 安企部 檢察總長까지 참석한 소위 安家會議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大檢察廳에서도 이 勞動問題에 관한 報道를 한번 낸 바가 있고 또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볼 때 그 핵심이 첫째 來年度가 勞動問題에 있어서 위기상황일 것이다 하는 전제를 하고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勞動部長官께서는 各 部處에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來年度 勞動問題가 위기상황이다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主務部處인 勞動部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6·29宣言以後 특히 6共和國이 탄생된 이래 계속해서 대개 그해의 上半期에는 극심한 勞使紛糾이 있어 왔던 것은 否認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난 2·3년 동안의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來年에도 上半期에는 그 熱도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를지는 명확히 斷定的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勞使紛糾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으며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면 今年과 같은 극심한 紛糾이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今年度 下半期에 들어와서 차츰 紛糾이 安定局面에 들어선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來年度 上半期中의 勞使關係도 今年 上半期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극렬한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展望입니다.

○李 協委員 主務部長官의 그러한 展望에도 불구하고 關係政府機關들이 위기상황이라고 자꾸 新聞報道를 통해서 國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연히 勞動者들을 향한 第2의 公安局造成의 인상이 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主務部長官으로서 勞使雙方을 염려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政府의 그런 견해나 인식에 대해서 적절한 矯正을 취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위기상황을 뒷받침하는 具體的 내용들을 政府가 열거하는 것을 보면 勞動運動勞力속에 左傾勞力들이 第3者 介入을 심의하고 있다 그래서 大檢察廳의 報道에 따르면 左翼左傾勞力들이 약 2,000名이 勞動界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명단이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報道도 냈고 이러한 報道에 대해서 國民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로 來年度 勞使問題가 정말 위기적 국면으로까지 치달을 것이다 하는 우려를 이 報道에 따라서 갖게 되고 또한 勞動者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일대 탄압을 예고하는 그런 일련의 政府의 움직임으로 파악되고 있을 법도 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사전에 공포의식을 집어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勞使關係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長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2,000名의 名單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 數年동안의 勞使紛糾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勞使紛爭의 현장에 우리가 상상하기에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나붙고 혹은 油印物들이 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民衆革命政府를 수립하자” 혹은 “現政權을 타도하고 臨時政府를 수립하자”는 등 진전한 勞動運動者들로서는 할 수 없는 각종 캐치프레이즈가 나붙고 또 油印物들이 살포되곤 했기 때문에 勞動部로서는 勞使紛糾現場에 불순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今年에 있었던 극심한 不法爭議들을 詳考해 볼 때 반드시 來年度에 하반기에서와 같은 진정국면이 그대로 계속 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순세력들의 개입은 미리 경고함으로써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來年の 일을 今年에 경고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 協委員 來年の 勞使關係를 비롯한 政局安定을 염려해서 警告性報道에 대해서 부정적일 필요없다 하는 長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大檢察廳 같은 데에서 2,000名이라고 발표하는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은 大檢察廳보다도 主務部署인 勞動部가 더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勞動部가 파악한 실상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그 2,000名이라는 것이 저는 檢察로부터 정식으로 들은 적이 없는 데요. 지난번에 副總理가 갑자기 소집을 해서 會議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檢察로부터 여러가지 狀況說明은 있었지만 2,000名의 불순세력명단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李 協委員** 勞動部 自體로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李 協委員**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他機關들의 報道가 나감으로써 國民들이 받는 인상이 극히 政局을 열려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또 主務部處가 할 일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확실치 않는 報道도 남발하는 데 대해서 主務部로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李委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勞動部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李委員님이 조금전에 지적하신 불순분자들의 개입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 勞動部로서는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일종의 권한외의 일입니다.

저희 勞動部로서는 勞動法에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勤勞監督官이나 혹은 勞動關係官署에서 行政的 指導를 하고 勤勞監督官을 原則적으로 勤勞者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行政指導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勞動部로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協委員** 이런 기초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長·短期的인 勞動政策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태도 때문에 결국 勞動을 公安當局에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長官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1次的으로 勞使問題 그것도 특히 合法的인 勞使問題에 있어서 勞

動部の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듭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상 勞使問題라고 할 수 없는 勞使紛糾의 범주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勞動部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번 國政監査 때에 法務部가 발표한 勤勞者 拘束者들 가운데 勞動法違反으로 拘束이 된 사람들은 몇 사람되지 않습니다. 전부 勞動部와 關係없는 상황에서 拘束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勞使紛糾 때문에 빚어졌습니다마는 따라서 勞動部로서는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 協委員** 豫算審議인 점을 감안해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역시 報道에 따르는 의문점을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勞·使·政이 함께 國民賃金福祉委員會를 구성하겠다는 政府의 의지를 강력히 여러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勤勞者側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副總理를 비롯한 政府의 여러 機關에서 綜合적으로 賃金福祉委員會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으로 해서 勤勞者들로 하여금 심히 곤혹한 입장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賃金福祉委員會問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報道와 실상과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永結** 政府의 政策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各 部處間에 異見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하반기 經濟運用計劃이 확정 발표되기 이전까지 당시 國民賃金調整委員會의 設立 여부에 대해서 勞動部의 견해가 어떻다 혹은 EPB의 견해가 어떠했다 하는 것은 政府의 政策이 확정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다만 政府의 政策을 결정하면서 저간의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발표한 이상 勞動部로서도 政府의 政策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國民賃金調整委員會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명칭이 國民賃金福祉

委員會로 하고 勞·使·政 공히 대표들을 파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委員會를 구성을 하고 副總理가 諮問機關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름으로 얘기한 것처럼 賃金調整委員會에서는 憲法에서 규정된 適正賃金を 산출해서 勞使協議過程에서 참고자료가 되도록 제서를 하겠다는 것이 당시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韓國勞總이 下半期 經濟運用計劃에서 賃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賃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는 賃金調整委員會에는 참석을 할 수 없다고 끝내 참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약간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經濟企劃院에서 최근에 國民賃金調整委員會라는 명칭자체가 마치 政府가 완전히 賃金を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하는 그러한 인상을 줄 염려가 있는 점 또 두번째는 이 委員會가 단순히 賃金を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인상하려고 하는 것을 억제만 하고 勞動者들의 福祉問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름을 勞使福祉委員會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 두번째는 역시 副總理의 諮問機關으로 하되 거기에 참여하는 委員은 순수한 公益委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使用者側이건 勞動者側이건 혹은 政府側이건 일체 거기에 正會員으로는 들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만 商工部長官 勞動部長官 經總會長 勞總委員長은 特別委員의 자격으로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正會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公益委員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案을 제시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 교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늦어도 11月10日 전후해서는 정식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報告드렸습니다.

○李 協委員 賃金の 성질상 勞使間의 자율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政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원칙은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저의 所信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勞動者들이 배제

된 일체의 賃金問題 거론이라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 문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줄이겠습니다.

다음 역시 來年度豫算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勤勞者들에 대한 勤勞所得稅超過徵收分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國會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各黨이 이 문제로 해서 이미 환급이나 또 來年度부터 勤勞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稅法改正案을 提出하고 있습니다. 또 當 勞動委員會도 勤勞者들을 위한 그러한 決議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마는 國會의 형식상 어색하지 않느냐 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國會의 노력과 野黨側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長官께서 財務部에 취한 勤勞所得稅超過徵收分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勞動部에서 財務部에 의견서를 냈습니까?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協調公文을 보낸 바 있습니다.

○李 協委員 그 핵심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사실은 韓國勞總과 韓國經營者總協會등에서 9月20日 전후해서 勤勞所得稅 부담이 너무 과중함으로 이를 완화해 줄 것을 當部에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勞動部에서는 勤勞者들의 實質所得向上을 기할 목적으로 매해 勤勞所得稅 부담완화를 위해서 협조를 關係部處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昨年の 경우에는 昨년에 勤勞所得稅法이 改正되었습니다마는 勤勞者免稅點을 上向調整해 줄 것과 또 勤勞所得稅控除額引上을 협의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마침 올해에 그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올 들어 勤勞所得者들의 賃金이 平均 18% 정도 올랐는데 7月末까지 徵收된 勤勞所得稅가 昨年同期에 비해서 10%가 증가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賃金上昇분이 稅金으로 흡수된다는 勞使雙方의 불만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勞動部로서는 財務部에 대해서 이러한 勞使雙方의 요청이 있고 또 우리 勞動

部로서도 所得稅分만큼 가령 所得稅가 낮춰진다면 實質的인 勤勞者들의 所得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所得稅法을 改正할 때면 이를 꼭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같이 첨부해서 財務部에 협조를 요청하는 公文을 10月4日 보낸 바가 있습니다.

○李 協委員 그게 國務會議에서 물론 전달되었겠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아닙니다. 그것은 部處間的 협조이기 때문에 公文으로 보내졌습니다.

○李 協委員 그러면 기속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결국은 稅制改革은 그 기초적인 계획안은 財務部가 마련을 하고 그게 어느 시기에 윤곽이 잡혀지면 經濟關係會議 그 다음에 次官會議 國務會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部處間的 협조는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行政的 行爲입니다.

○李 協委員 현재는 어떻게 이 超過徵收分에 관한 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勞動部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아직 공식문서로서 財務部가 저희들한테 回報을 해 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口頭로 저한테 연락을 해온 바에 의하면 勤勞所得稅法이 昨年 定期國會에서 4黨의 합의를 보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한 勤勞所得稅法이 실행 1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今年度에 또 所得稅法을 改正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跛行的으로 稅法이 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사실상 勤勞所得稅分의 重課的인 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全 勤勞所得稅의 대상자들인 納稅者들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60萬圓 이하의 勤勞者들이 아니고 그 이상 12% 정도에 해당하는 高所得者의 불만의 소리로 간주되는 점등을 감안해서 來年度에 전반적으로 構造的인 稅制改革을 計劃으로 勞動部에서 협조 요청한 所得稅法의 改正 및 使用者와 勤勞者들의 要求事項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稅制改編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李 協委員 그러면 12% 高所得者들의 불만

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財務部의 答辯을 勞動部는 그대로 용인하고 아울러서 來年度의 稅制改編 구상 때나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財務部의 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勞動部는 결국은 勞使 쌍방에서 제기된 超過徵收分에 대한 그저 「립 서비스」를 한번 해 준 것으로 그칠 태도이십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할 의지를 갖고 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財務部의 이유에 대해서 그 當爲性 여부에 대해서는 稅制에 관한 저희들이 무슨 專門的인 機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財務部의 그러한 口頭連絡과 동시에 政府로서는 來年度에 稅制改革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基本方針이 결정되어서 금년 8月달에 이미 발표된 바 있고 또 이번 勞動部의 協調公文 發送 이후에 言論機關을 비롯해서 各界各層에서 所得稅法의 改正 요구가 활발히 개진된 뒤에 일단 협의를 한 끝에 來年度 稅制改革을 한다 하는 원칙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政府의 일원인 勞動部로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일단은 政府의 基本原則인 내년 稅制改革에 될수록 우리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長官의 答辯을 취합해 볼 때 長官께서 財務部로부터 전해 들은 政府의 實相에 대한 인식은 國民을 대표하는 國會의 인식과 거리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超過徵收分에 대해서 즉각적인 勤勞者 혜택으로의 환수를 주장하는 각 野黨과 또 來年度부터 所得稅法의 改正에 의한 혜택을 촉구하고 있는 國會의 태도와 현격히 거리가 있으므로 저는 勞動部가 다시 한번 勞使 쌍방으로부터 제기된 긴급한 문제를 財務當局에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우리 委員長께도 우리가 이 문제의 논의를 거친 끝에 國民을 대표한 國會로서 또 勞動問題를 다루는 主管部署로서 이 문제에 대한 國會의 태도와 의지를 政府 쪽에 다시 한번 강력

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會議進行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지금 李 協委員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委員이든 구체적으로 成案해서 제의할 때 委員長은 法에 따라서 議事進行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하시든 아니면 委員님들 간에 보다 더 협의를 거쳐서 뒤에 하시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成案節次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 協委員 委員長님의 그러한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또 先輩 同僚委員님들의 공통된 관심이 다 토로된 다음에 委員會로서의 적절한 措置가 취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豫算 관계를 本格的으로 한번 質問해 보겠습니다.

○韓光玉委員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勤勞所得稅法에 대한 改正 또는 超過徵收分에 대한 還給措置問題는 全國民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처음에 長官께서 所得稅率에 대한 超過徵收分 뿐만 아니라 免稅點引上問題 여려가지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財務部에 의해서 내년엔 稅法을 손질하니까 그때 改正할 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財務部 측의 견해에 남득이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로서 勞動部로서는 그 이상의 「액션」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勞動委員會측의 전체 委員들의 견해는 지금 各部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財務部는 財務部대로 또 商工部는 商工部대로 勞動部는 勞動部대로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왕 모처럼 勞動部가 자기 목소리를 낸 것 아닙니까? 이번에 勞動部에서 財務部에 協調公文을 낸 내용이 신문지상에 報道됐을 때 이제 勞動部가 제 역할을 한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환호를 하지 않는 國民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잠깐 財務部 측의 견해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意思를 개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 協委員도 주장하셨지만 소위 勤勞者의 權益을 담당하고 있는 主務部 署로서 그 견해를 굽히지 말고 지난 번에

協調公文 보낸 내용을 財務部長官도 좋고 아니면 國務總理를 통해서라도 다시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당초부터 勞動部가 그런 協調公文을 보낼 때에 徵收分の 還收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稅制改革이 있거나 혹은 稅法改正이 있을 때에 반영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만일의 경우에 稅制改革이 내년으로 늦추어져서 금년에 안될 경우에 徵收된 부분은 勤勞者들의 福祉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政策的인 배려와 저희들이 또 政策開發을 해서 사용되는 방향으로 1年 동안이지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韓光玉委員 아니 마음에만 새기면 안되지요 모처럼 勞動部의 자기 목소리가 나왔으니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번에 崔永喆 長官다운 목소리를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租稅抵抗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財務委에서도 논의되겠지만 가장 손쉬운 것이 勤勞所得稅거든요. 源泉徵收해 버리니까... 그래서 勞使紛糾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賃金만 引上되면 무엇 합니까? 引上된 이상으로 전부 다 稅金으로 떼어가는 데... 실제로 勤勞者들의 所得이 향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稅法 관계는 財務委나 財務部에서 하겠지만 勤勞者들의 입장을 代辯하고 있는 當委員會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새기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알았습니다.

○李 協委員 實務的인 豫算에 관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歲入歲出豫算概要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8페이지 勞使教育에서 勤勞者 共産團海外研修에 2億9,000萬원을 計上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필 共産團 海外研修냐 하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共産團

어느 나라의 勞使關係가 우리 勤勞者들이 가서 본받을 만한 勞使關係를 가진 勞使先進國家가 있는지? 있다면 한 5個國만 예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저희들이 勤勞者들을 共産圈 海外研修를 시키겠다는 뜻은 거기 가서 건전한 勞組活動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現行法을 遵守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勞使紛爭 現場에 각종 캐치프레이즈로 보아서 나타나고 있는 左傾暴力勢力의 투입 그것이 무척 걱정돼서 혹시 그들의 誤導된 勞使觀 혹은 勞動運動에 물들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共産社會의 統制經濟 속에서 勞動運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건전한 勞動運動이라야만 되겠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으로 左翼勢力들한테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國家觀이라고 할까 社會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금년 말과 내년 이태 동안은 共産圈 研修를 시켜 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李 協委員** 그러면 여기에 派遣되는 멤버들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選定합니까? 예를 들어서 長官 말씀대로라면 그런 誤導된 共産主義式 내지 社會主義 勞動觀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이미 물들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직 물들지 않은 건전한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까? 어느 기준으로 뽑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選拔은 勞動部가 직접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韓國勞總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中小企業勞動組合 幹部라든지 勤勞者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들의 魔手에 걸려들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6·25의 경험이 없는 青年層 兵役을 畢하거나 면제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뢰해서 選拔했습니다.

○**李 協委員** 그런데 政府가 左傾勞動運動勢力을 거론할 때 보면 대체로 이북에 갔다왔다든지 共産圈에 갔다왔다든지 이런 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自生的으로 이데올로기적인 教育을 받았거나 스스로 이데올로기적 思考에 젖어진 사람들을 많이

샘플로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教育으로 해서 自生的으로 이데올로기적 偏見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공세와 침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豫算事業의 효과에 있어서 長官으로서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李委員님 말씀대로 그것은 幼稚園教育에서부터 高等學校 卒業 혹은 大學校 卒業할 때까지 文敎部의 전반적인 教育行政을 통해서 自由主義의 優越性은 충분히 教育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철저한 教育이 되지 못해서 어떤 이유든지 自生的인 左翼思考를 하게 된 階層이 혹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날 우리 教育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勞動部가 아주 단기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불끄기 식이지만 우선 불이 났으니가 불을 끄는 데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事業을 2年 동안만 우선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더 확장을 하고 만일에 더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금년 下半年 經濟運用計劃을 審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舉論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李 協委員** 예를 들어서 資本主義秩序 내지 自由民主主義 政治秩序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勞動運動家 내지 勞組員들을 派遣해서 얻는 그러한 성과에 비추어서 이런 資本主義 내지 自由民主主義 政治秩序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自生的으로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選拔해서 共産社會의 實相을 보게 하는 것과 그 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自生的으로 自由主義體制 혹은 資本主義體制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層을 보았을 때 수반되는 危險負擔을 생각할 때 政府로서는 현 단계로서는 그 분들을 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保安次元에서?

○勞動部長官 崔永結 예.

○李 協委員 그런데 勞總에다가 選拔을 의회 해 놓고 勞動部로서는 아무 기준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大企業이 아닌 中小企業... 그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韓國勞總에 그냥 아무런 事前指示라고 할지 상의 없이 選拔을 의회해 놓으면 과거에 항용 있었던 產業視察이다 一線視察이다 하는 위로 출장적 성격에 흘러 버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철저하게 그것만은 배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勞動部가 너무 간여해도 좋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할 하도록 했으며 따라서 研修에 가는 데는 勞動部 職員 한 사람이 꼭 인솔해서 함께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 協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勞使紛糾 現地調停指導라는 豫算이 있는데 이게 3,800萬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現場指導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이것은 주로 旅費입니다.

○李 協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大宇造船 罷業이라든지 現代重工業紛糾라든지 이런 대규모 長期紛糾같은 때 現場指導는 누가 가서 어떻게 하지요?

○勞動部長官 崔永結 原則的으로는 一般的인 紛糾의 경우에는 現場勞務事務所가 중심이 되어서 감니다마는 勞動部는 自體的으로 지금 3個機動班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長期的이고 大型화된 紛糾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어서 勞務事務所의 事務官이라든지 그 人力만 가지고는 政策判斷도 힘들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中央에서 機動班을 보내서 現地에 있는 勤勞監督官들 職員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에는 中央에 豫算이 그쪽에 함께 投入이 되겠습니다.

○李 協委員 그런 豫算은 주로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各 項目마다 다 다름

니다. 예를 들면 食事도 뭐하고 하는 것은 辦公費로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旅費는 旅費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사 會議費는 또 會議費대로 따로 되어 있어서 各 項目에 전부 다 걸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李 協委員 그러한 大型基幹產業體의 紛糾나 이런 경우에는 勞動部가 主導權을 잡고 있기도는 대개 公安當局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安企部라든지 檢察 警察 뭐 이런 데서 대개 現場調停主導權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勞動部가 없어서 그쪽 豫算을 쓰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豫算은 일단 편성이 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李 協委員 이 豫算이 사방에 偏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紛糾現場處理 豫算이 확보가 되어있어야만 그 豫算에 따라서 主務部로서의 勞動部가 現場調停 내지 指導의 主導權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結果的으로 公權力한테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써 勞動部는 이 勞使問題에서 실제로는 변두리에 처지는 이런 결과를 豫測할 수 있고 또 과거의 많은 事例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豫算의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한 事例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長官의 확고한 決意같은 것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쪽 豫算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勞動部長官 崔永結 豫算이 많으면 그 만큼 활동도 많아지겠습니다마는 다만 人員과 관련된 豫算은 增員과도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李委員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長期化되고 大型紛糾現場에서는 勞動部가 主導權을 잡기보다는 가령 警察이나 檢察이 主導權을 잡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全國의 勤勞監督官이 전부 모여봐야 警察兵力으로 치면 1個中隊가 안 됩니다. 429名밖에 안 되는데 그런 大型化되고 長期化된 紛糾에서 政策判斷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태를 진압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차피 勞動部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來年에도 여러가지 勤勞監督官의 문제

가 있다는 委員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勞動部로서는 그래도 勤勞監督官들의 數가 絶對的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勤勞監督官의 增員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來年豫算에 겨우 62名 勤勞監督官의 增員이 책정되고 그 豫算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豫算의 增額이 「제로베이스」性이 아니고 항시 前年度에 準한 繼續事業性 豫算編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豫算增額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李 協委員 저도 여기서 어떤 物理的인 힘의 행사에 있어서 警察力과 대등한 그런 對比를 전제로 한 質問이 아니고 政策이나 이러한 측면의 主導權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勞動部豫算을 집행할 責任者로서 勞使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다른 公權力에 의해서 勞動部가 배제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사태 악화를 부르는 그러한 前例가 답습되지 않도록 하는 長官의 豫算執行者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勞使教育本部라는 것 아마 長官이 어제 豫算提案說明에서도 그 必要性을 강조했고 또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에서도 아마 그 必要性이 인정된다고 지적됐습니다마는 저로서는 長官과 專門委員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機構의 必要性을 강조함에 있어서 흔히 勞動者는 勞動者의 논리로 經營者들은 經營者들의 논리로 서로 跋行的인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勞使雙方의 화해롭고 조화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勞·使·政이 참여하는 이러한 研究機關이 필요하다 대충 要旨를 추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勞動者들이라고 그래서 勞使關係를 교육시키는데 과연 무리하게 勞動者들의 權益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現實的으로 되고 있느냐 그들의 「프로그램」속에서는 使用主와 조화롭게 勞使關係를 형성해 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없다는 말인가 또 經營主들의 教育에 있어서도 勞使問題를 취급함에 있어서 勞動者들의 사정을 고려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절대 없다는 전제인가 이 전제가 根本的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함께 이 政府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李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勞使教育本部를 이번에 設立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말하자면 勞使雙方의 共存論理를 개발을 해서 勞使雙方이 참석하는 교육이 무척 필요하다 그러한 論理에서 되었습니다.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勤勞者 教育을 實質的으로 담당하고 있는 勞總이 주관하는 교육 또 使用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經總동 經濟團體에서 하는 교육등에서도 물론 共存의 論理가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個人的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使用者들 중에서도 大企業體의 경우에 「오너」들 말하자면 最高企業主 所有者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勤勞者들의 경우에도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로 事業主들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勤勞者들을 대할 때 다소 가령 賃金에 있어서 100% 만족은 못 하면서도 서로 이해와 양해속에서 和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육을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使用者들은 우리가 어떻게 勤勞者들 하고 같이 宿食을 하면서 한방에서 땀굴면서 같은 밥먹고 하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使用者들의 權威主義的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어떻게 땀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냐 使用者와 勤勞者들이 같은 이불속에서 잠을 함께 자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아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식구로구나!” 하는 생각이 날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單純論理에서 對應論理가 아닌 共存論理를 찾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의 勞使問題를 平和的으로 정착시키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이번에 이것을 設立해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아주 조그맣게 해서 實效가 없을 경우에는 1年뒤쯤 再評價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만일에 實效가 있어서 效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더 勤勞者들만의 教育 使用者들만의 教育의 「포션」을 줄이고 勞使合同教育의 폭을 더 넓혀서 확장시킬 생각입니다.

○李 協委員 저의 경험으로도 최근에 어느 勞動研究機關에서 勞使가 함께 모여서 서로 과거의 事例들을 발표하고 一泊을 하면서 서로 정만 가가와 진 그런 습속의 경험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既存의 團體들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실정에 관해서 勞動部가 報告를 받은 事例들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몇 군데서 그런 事例가 있었고 저도 텔레비전報道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全般的으로 다 그러냐 하면 극히 一部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의 그런 교육을 더 확대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번 勞使教育本部를 設立한 것입니다.

○李 協委員 대개 團體가 設立되었을 때 애당초에 목표로 한 것과 또 일의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목표를 항상 추가시키기 마련입니다. 靜態의으로만 목적이 한정되지 않고 또 일의 추진과정에서 動態의으로 목적이 확장되는 事例들을 우리들은 번번히 봅니다. 지금 勤勞者만의 研究機關으로 출발했던 經營者들의 研究機關으로 출발했던 勞使雙方이 함께 인식이나 생활의 경험에서 어울림으로써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발견들은 各 團體들이 다 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事例들을 報告받았다고 長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엔 인식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런 機構를 꼭 세워야 할 必要性이 과연 共感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나 아니면 牽強附會나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牽強附會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일 이 勞使教育本部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생긴 勞使發展研究會라든지 이 勞使發展研究會라는 것은 그 명칭이 말하듯이 勞使의 좋은 共存關係를 연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團體에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꼭 이것뿐 만 아니라 기타 유사한 團體에 앞으로 다 보조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李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勞使團體 또는 각종 社會團體에서 여러 가지 勞使教育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勞使教育을 統轄하는 中樞的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設立되는 勞使教育本部는 각종 團體에서 하고 있는 勞使教育에 教材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講師를 양성해서 지원하고 기타 既存 勞使教育機關의 教育이 效率的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教育機關들은 각자 教育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잘 되도록 이 勞使教育本部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李 協委員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지금 現 機關들에게 用役을 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특히 지금 局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統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려면 勞使雙方으로부터 客觀的인 차원에서 中立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機關의 생명은 저는 中立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中立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이 機構를 준비하고 있는 핵심「멤버」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勤勞者들이 政府에 대해서 中立的機關이라고 지금 현재 勞使關係에 있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또 현재 會長으로 내정된 사람은 과연 中立的人物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계속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勞使教育本部는 勞使 兩側으로부터 신뢰받는 中立的인 입장에서 教育을 실시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教育의 中立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議決 機關인 理事會의 구성을 勤勞者를 대표하는 理事 使用者를 대표하는 理事 또 政府를 대표하는 理事 각각 3人씩을 委囑을 했고 그밖에 公益을 대표하는 理事 6人 등 15人 정도로 구성해서 公益의次元에서 理事會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定款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현재 勞動者側에서 代表理事를 파견하기를 거부하고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韓國勞總에서 추천이 되어서 이미 理事가 任命이 났습니다.

○李 協委員 아까도 누누히 中立이 대전 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시다는 이 일을 말아나갈 사람들이 政治의 中立 例外 들면 黨籍을 가지고 있다든지 함으로써 政治의 中立에 의혹을 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이런 政治의 中立같은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勞使雙方을 統轄하는 차원의 中立을 보장하려면 바로 權力的 中立이나 政治的 中立이 절대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보장이 있으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勞使教育本부의 出捐을 政府만 하지 않고 勞使政이 공동으로 出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法人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의 陳容은 法人으로 활동할 때까지 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活動을 시작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안에 法定團體로서 立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李委員님 말씀하신대로 任員들의 政治的 中立을 보장하기 위해서 黨籍을 갖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그렇게만 얘기해 두겠습니다. 그것은 長官인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李 協委員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현재도 이 機構는 이미 活動을 전개하기 시작해서 아마 알기에 勞動部建物에 같이 作業班을 가지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은 방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李 協委員 지금 현재 준비작업에 사용되는 豫算들은 어디서 조달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현재는 銀行에서 起債해서 쓰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그러면 追更에도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豫算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아직 昨年度 豫備費支出에 관해서만 委員會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今年度豫備費에서 금한 부분은 計上이 될 것입니다.

○李 協委員 이 단체가 기본적으로 民間團體이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현재로는 財團法人이지요.

○李 協委員 그러면 12億을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國家돈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12億分만은 그렇습니다.

○李 協委員 이 團體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할 이유가 납득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圓頭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政府의 필요성에 위해서 政府도 出捐을 하고 17億원은 政府出捐입니다. 그외에 經總과 勞總에서도 出捐을 합니다. 出捐이 되기 때문에 財團法人으로 발족을 한 것입니다.

○李 協委員 하여튼 中立을 生命으로 하는 이 機構가 政治的 權力的 中立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國民의 이름으로 하는 이 審議에서 豫算을 배정 받기에는 심히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韓國勞動研究院 속에 國民貨金福祉委員會豫算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李 協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韓國勞動研究院이 앞으로 設立될 貨金委員會의 幹事機關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實務的인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計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豫算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李 協委員 지금 實務活動을 시작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아직은 조금전에 報告를 드렸습시다마는 당초에는 國民貨金調整委員會로 하려고 저문이 되었다가 그것이 勞·使·政 3者 참여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勞使安定委員會라는 이름으로 公益委員만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特別委員制度를 두는 방향으로 구상이 되고 있다고 報告를 드렸습시다마는 아직 그 委員會가 발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實務

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李 協委員 그러면 그 委員會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지 않는다면 豫算도 집행하기 어려운 機關이겠네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물론 그렇습니다. 그 委員會가 발족이 안된다면 來年度 豫算에 計上된 國民賃金福祉委員會豫算은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李 協委員 왜 하필 韓國勞動研究院이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韓國勞動研究院은 아시다시피 政府豫算으로 勞動關係研究를 하고 있는 團體입니다. 따라서 研究人力이라든가 축적된 지식같은 것이 다른 機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委員會가 각계를 대표하는 委員들로 구성되어서 協議機能은 하지만 實務機能은 이러한 확실한 團體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하여튼 이 國民賃金福祉委員會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간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賃金委員會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 豫算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勤勞靑少年 아파트 문제인데 우선 昨年보다는 줄어든 것에 관해서는 어제 설명이 계셨고 이것을 立地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勞動部婦女指導官 金松子 婦女指導官 金松子입니다.

李 協委員님께서 質問하신 내용이 立地選定基準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國家補助를 하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大企業을 제외한 零細中小企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零細中小企業도 한企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國家補助이기 때문에 3個業體가 최소한의 아파트를 건립을 하려면 최소단위가 30世帶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個團體가 30世帶를 건립할 때 國庫補助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우선 공동 기숙사형태이기 때문에 그 會社가 선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령 工團內에 會社가 있으면 工團內에 짓든

가 아니면 그 會社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면 걱정한 거리에 좀 멀리 떨어져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李 協委員 主務局長으로서 이 事業은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勞動部婦女指導官 金松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선 대상은 零細中小企業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未婚女性勤勞者를 위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애기인즉슨 특별히 未婚女性勤勞者는 農漁村出身이고 또 대부분이 부모를 떠난 상태인데다가 大企業은 모르겠지만 中小企業에서는 1次的으로 企業主들의 배려가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또한 低賃金階層이기 때문에 특히 女性은 母性機能이기 때문에 國家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상당한 問題點이 나올 것으로 알고 이 事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지금까지 7,000餘世帶가 건립이 되어서 3萬5,000名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보서는 6次計劃期間이 끝나는 91年度까지만 건립을 하면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女性勤勞者들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면今年度에 유달리 豫算이 줄어든 데 대해서 다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未婚勤勞者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事業이라면 비단 中小企業이나 零細企業뿐만 아니라 기숙사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大企業들에게도 또 大企業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많은 非業務用土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증점적인 시책을 펴서 大企業에 종사하는 勤勞者들에게도 혜택이 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勞動部婦女指導官 金松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大企業에서는 그런 대로 賃金이 좀 높고 또 大企業에서는 勤勞者들에 대한 기숙사시설을 대충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大企業이 인근의 집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그런 자체조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政府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大企業에 대해서 주느냐 하는 문제는 6次計劃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國民의 稅金이니까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아닌지 關係部處와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實例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인데 왜 今年에 1,000世帶로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大企業에 國庫補助를 할 것 같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보호대상이 零細中小企業의 女性勤勞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다 보면 우선 예를 들면 한 30世帶를 짓는데 저희들이 國庫補助를 1億7,000萬원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基金으로 2億정도 빚을 지게 되고 또 땅값을 坪當 100萬원으로 잡을 때 13億이 듭니다. 國家가 補助해 주는 것은 1億7,000밖에 안되는데 자체적인 부담이 땅값이 13億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每年 2,000世帶씩 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來년에는 좀 줄어서 1,000世帶로 했습니다.

○李 協委員 잘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잠깐만요. 지금 저희 中浪區에서 서울시에서 靑少年勤勞者 아파트로서 부지가 확정되어 있던데 그런 부지확정에 대해서 기준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面牧洞쪽에는 工業地域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일에 勤勞者아파트를 지어서 앞으로 勤勞者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서울시에 부탁할 때 미리 기준을 선정해서 줍니까?

○勞働部婦女指導官 金松子 저희들이 서울시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200世帶정도 될 것 같으면 한 1,000명이 되는데 面牧洞자체에서는 1,000명이 될지 몰라도 江北쪽에 1,000名 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九老工團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女性勤勞者數를 비교해 보니 江北이 자꾸 제외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江北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을 확정했을 때 勞動部로 봐서는 문제가

없던가요?

○勞働部婦女指導官 金松子 저희들로 볼 때는 지금 江北地域엔 上溪洞하고 지금 선정된 그 두군데 뿐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本委員이 볼 때에는 우리 地域에 工業團地도 없고 또 工業地域으로 정해져 가지고 工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勤勞者들이 出退勤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큰 도움도 안되고 住民들한테만 문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데요.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勞働部婦女指導官 金松子 저희들이 주로 기준을 工業團地 인근 아니면 지금 農工團地에도 하고 있고 또 女性勤勞者가 대부분 많이 있는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200世帶같은 1,000名 수용인데 그 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住民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17페이지의 海外開發公社豫算에 관한 문제인데 新聞에 이미 報道된 바와 같이 海外開發公社가 곧 폐지되고 韓國海外協力公團이 구성된다 이렇게 報道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豫算關係는 어떻습니까?

○勞働部長官 崔永喆 우선 立法豫告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일단 승제가 되겠습니다.

○李 協委員 이런 海外開發公社豫算으로 審議 받아 가지고 가서 그 承繼機關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勞働部長官 崔永喆 法的으로 뒷받침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立法豫告를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關係部處에서 약간의 이의가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전부 합의가 되어 가지고 國會에서 法案을 통과시킬 경우에 海外開發公社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는 條項이 지금 豫告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豫算도 자동으로 承繼됩니다.

○李 協委員 18페이지의 職業訓練大學設立問題입니다. 이것이 144回때 委員會에서 우리 同僚委員인 李相洙委員께서 주로 집중적으로 質問하신 事項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前長官의 證言에 따르면 立地가

昌原으로부터 절대 이전이 불가하다 이런
答辯이었는데 어떻게 昌原으로 이전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원래 慶南昌原에 설립추진을 해오다가 昨年
定期國會에서 委員님들이 오히려 위치가 나
쁘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데로 옮기려고 천신만고 끝에 찾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協委員** 民意를 존중해 주신 長官의 태
도에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의 技能人 優待風土造成이라
는 항목입니다.

이 技能人優待라고 하는 優待라는 개념
자체가 豫算을 풀어볼 때에는 우대와 豫算
이 일치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이 豫算이 주로 大會 시합 이런 豫算들
인데 실제 우대에 걸맞는 豫算은 機能獎勵
金支給이라는 항목에 31億500萬원 그 다음에
간접우대라고 할 수 있는 産業視察 등등에
約 3億정도... 26億의 豫算속에서 實質의인
우대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데에서 문제를 제기하
는 것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職業訓練局長 말
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李 協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技能
人優待風土造成에 따른 豫算 26億원이 어찌
면 技能人優待風土造成을 위한 豫算이 아니
고 그 중의 그 뜻에 해당하는 일부밖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같습
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技能人優待風土造成에
대한 豫算 26億원은 全額이 技能人 우대를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根本的인 이와 같은 문제가 나
온 것은 이제까지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
피 저희 技能人力에 대한 一般的인 社會認
識이 士農工商이라는 그러한 儒敎的 思想에
기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쟁이라는
인식이 아직 잔존해 있어가지고 지극히 產
業人力에 대한 社會的 認識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 本人 스스로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습

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事業內容 자체
에서 보시다시피 技能人力에 대한 우수한 사
람에게 賞을 주거나 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大會라든가 이것은 國內나 國外 두
가지 다 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행사를 벌임으로써 행사를 통한 技能人
에 대한 인식을 社會的으로 높여 즐려고하는
의미에서 技能人의 우대풍토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가끔 실정을 실제로 조사하는
일도 있지요? 예를 들면 技能競技大會에
나가기 위한 選手 그 選手는 꼭 올림픽選
수가 훈련되듯이 모든 것을 전패하고 技能
競技大會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만을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은 좀 가혹하게 표현하면
技能人優待가 아니라 技能人 虐待의 경지에
이르는 사례들도 저희들이 地方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技能人 우대 豫算을 競技에 주려해서 편성
함으로써 國家政策이 이렇게 알려지고 그렇
게 해서 國家宣傳이나 또 이것을 관장하는
機關의 宣傳이나 技能人을 지도하는 指導人
宣傳이나 이런 데 많은 豫算이 다 쓰여지
고 그 배분에 있어서 실제 技能人이 훌륭
한 技能을 확보함으로써 社會的으로 우대를
받는다는 핵심적인 부분에는 豫算의 配定比
率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政府가 技能大會行事에 너무 많은 豫算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곳에서
入賞한 사람들 또 入賞되려고 노력한 사람
들 技能을 연마하기 위해서 不撤晝夜 노력
한 사람들이 社會에 나와서 우대를 받는
社會的 地위의 개선이나 이런 쪽에 연결될
수 있는 豫算配定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
지 않느냐 하는 質問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그것은 제가 答辯 드리
겠습니다.

李委員님 의견과 전적으로 同感입니다. 다
만 委員님들이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
서 技能獎勵法을 制定해 주셨습니다. 李委員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으로 철저

하게 技能獎勵法을 運營해야 할텐데 그 法 내용에 의하면 사실은 機能獎勵基金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勞動部로서는 늦어도 93年까지는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위해서 基金을 500億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來年度 豫算에 100億원을 요구했었는데 豫備審査 과정에서 全額이 削減돼 버려서 당초에 우리가 計劃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소 基金 目標額을 좀 修正해서 200億원 정도는 93년까지 조성할 計劃입니다. 따라서 李委員님이 염려하신 技能人의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갖가지 실질적 豫算등과 賃金支援은 우선 技能競技大會를 중심으로 해서 外形的으로 말하자면 빛만 내는 데 사용되는 豫算과는 별도로 基金을 하루 속히 조성해서 李委員님이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政策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國內競技大會를 비롯해서 國際技能競技大會를 우리가 전부 포기해 버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이것은 이것대로 살려가면서 李委員님이 뜻하시는 바 技能人優待風土도 함께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 協委員 大會와 실질적인 우대의 豫算 配定을 조정해 볼 여지는 없느냐 하는 質問이었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이번에 저희가 100億을 요청했었는데 全額이 削減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來年度에는 제가 좀 메를 써 보겠습니다.

○李 協委員 고맙습니다. 제 質疑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상세한 문제는 小委에서 또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小委라는 것이 모두에게 과정이 하나하나 공개되지도 않고 또 記錄으로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小委에서 다루더라도 조금 豫算에 대한 공감대나 기본적인 문제 제기나 인식같은 것은 常委 全體會議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지엽적인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豫算案 編成의 重

點方向이라는 것을 놓고 今年度 豫算이 이와 같은 重點方向에 맞게 적절하게 編成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 質問을 하겠습니다. 전체 政府豫算속에서 勞動部 豫算이 제약을 받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內部構成이라도 어떻게 고려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豫算案概要書 2페이지에 90年度豫算案編成의 重點方向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勞使關係 安定施策持續推進 그 다음에 勞動條件改善 및 福祉增進事業의 擴充 그 다음 雇傭安定事業의 積極開發 產業構造變化에 副應하는 技能人力의 養成 產災豫防事業投資擴大 產災保險事業의 內實化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맨 첫번째의 勞使關係의 安定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87年 이후 88年을 거치고 89년에 이르는 동안에 勞使問題에 관한 환경이 현저하게 변했던 것은 인정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盧武鉉委員 결국 勞使問題에 관련이 있는 政治的 社會的 環境이 현저하게 변했다 그리고 勞使問題의 重要性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社會問題에 있어서 政治 經濟 社會 제반 문제 중에서 勞動問題가 주변 영역의 문제에서부터 주변적인 또는 附隨的인 문제의 行政對象에서부터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行政對象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政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전체 社會的 變化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政治的 社會的 環境의 變化에 대해서 政府가 거기에 副應하기 위해서 내놓은 政策意志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民主化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말은 이와 같은 大變化가 있기 이전의 政府의 政策이라든지 政治 또는 政策 자체가 적어도 行政的인 부문에 있어서도 非民主的 요소가 많이 있었다 라는 것을 사실은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그 線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勞動行政에 있어서도 非民主性이 있었다 이런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政府 차원에서
의 非民主性 문제도 있겠고 또 勞動部의 所管
行政으로서의 문제도 역시 지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
게 本質的인 質問을 던지겠습니다.

87년에 이르기까지의 勞動行政에 있어서의
非民主性 그것은 政府 차원에 있어서의 勞
動行政에 있어서의 非民主性和 소위 前近代
性문제와 勞動部 차원의 行政에 있어서의
非民主性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長官
께 지금 새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왜
문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評價에서
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行
政指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政策方向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豫算
도 거기에 맞도록 編成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적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7年 88
년에 이어지는 大變革期 이전의 政府 政策
에 있어서의 非民主性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우리 盧委員님은 勞動問
題 專門家이신데 저는 사실은 勞動問題에
대해서는 극히 非專門家일 뿐만 아니라 사
실은 안목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勞動
行政을 말기 이전 특히 87年 第6共和國 출
범 전의 勞動行政의 非民主性에 대해서 아
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제 능
력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6共和國이
출범하기 전 6·29宣言이 있기 전의 우리나
라의 勞動行政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勞動
行政 자체가 없었다 만일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의 物量的 成長 위주의 經濟政策 量的
成長 위주의 經濟政策에 완전히 從屬的인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勞動政策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第5
共和國이 출범하기 전에는 勞動部가 독립되
어 있지도 않았고 勞動廳에서 勞動部의 業
務를 관장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勞動廳
도 없이 保社部의 하나의 課로부터 시작해
서 局에서 전체 勞動問題를 다루었으니
가 勞動問題에 대해서 당시에 行政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단적으로 機構面에서도 증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物量爲
主 經濟成長爲主 또 輸出「드라이브」政策이
무작정하고 앞만 보고 가는 사이에 勞動行
政은 그것을 거의 뒷받침해 주는 行政이었
기 때문에 勞動行政이라기보다는 支援行政이
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6·29宣言 이전
까지의 勞動行政은 勤勞者들의 福祉的 측면
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分配面에 있어서
공정한 分配를 위해서 勤勞者의 福祉를 실
질적으로 行政의으로 혹은 豫算의 뒷받침해
해 주지 못하는 과행적 行政이 지속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勞動部가 勤勞者들의 福祉 혹은 勤勞者들을
위해서 行政을 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使用者들을 위해서 行政을 하는 곳이다 하
는 不信을 조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勞動部
에 대한 不信은 아직도 그 여운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
작스럽게 非專攻 분야에 대해서 盧委員님께
서 「라운드업」하라고 하시니까 대충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盧武鉉委員** 核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
다. 사실은 成長支援行政이다 開發支援行政이
었다 이렇게 한 마디로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行政手段이 주로 어
떤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한 마디로 얘기하면
勤勞者들의 희생 위에서...

○**盧武鉉委員**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政府
의 綜合行政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반영으로서 勞動部 行政 부분이 이와
같은 成長支援行政을 뒷받침해 주는 政策手段
으로서 몇 가지의 行政들을 해왔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전체적으로 5共和國 시절에
勞動部의 職制와 豫算은 점점 규모가 成長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 成長된 機構로 했던 行政의 내용
은 바로 成長支援行政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특
성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거
기에서 했던 成長支援政策의 구체적인 표현

으로서의 勞動行政 구체적인 政策手段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長官께 묻는 것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무엇합니다만...

○**勞動部長官 崔永結**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는 것을 물으시는데요.

○**盧武鉉委員** 저도 한 마디로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勞動統制政策으로서의 소위 勞動行政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勞使教育 부분이 거기에 投入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勞使教育에 상당한 豫算을 編成해서 勞動行政에 상당한 豫算을 投入해서 勞使協議會를 강화해 왔다는 것 그리고 勞使協議會運營支援 그리고 勤勞者들에 대한 諸般教育 소위 成長 위주 政策을 勤勞者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教育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勞動部가 公權力를 행사하는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韓國의 經濟成長의 장애가 되는 제반 理論의 흐름이나 소위 勞動運動의 理論이나 이런 것이 억제되는 쪽으로 教育을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불행하게도 구체적인 行政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法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法은 있었는데 그 法이 法대로 통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도 爭議調整法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 爭議調整에 의해서 爭議申告를 한 것이 1년에 한 件도 없는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教育事業에 豫算이 증점 投入되었다든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法이 있었으되 法대로 勞動運動이 활발히 진전되지 못했고 또 동시에 勤勞者의 福祉向上이 法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되 실제로 運營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勞動行政이 서로 모순되는 두 個의 行政目的을 한꺼번에 달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勞動行政뿐만이 아니고 行政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중에서도 勞使問題가 行政의 측면에서 반영될 때에는 두 個의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첫째는 勤勞者들의 權利保護와 福祉向上이라는 이와 같은 行政目的을 한편으로는 달성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成長과 繁榮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勞使關係의 안정을 달성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된 行政目的을 함께 달성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종합하는 政策目的이 勞使關係의 안정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權利도 신장하고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生産性도 향상시켜서 經濟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잘 되어 나가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표현한다면 勞使和合 또는 勞使安定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勞使安定이라는 조건을 과거에는 勞動統制政策으로 시행해 왔다는 것이지요. 한쪽을 억압하는 政策으로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소위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同意하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同意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勞動統制政策이 아닌 한쪽의 行政目的 勤勞者들의 權益을 향상시킨다는 이 점에 있어서의 필요한 두 가지 수단은 하나는 強行法에 의한 國家에 의한 勤勞者의 보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勤勞基準法이라든지 기타 產業安全保健法이라든지 이런 제반 法規로 해서 國家權力이 직접 개입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當事者의 社會的 交涉力을 향상시키는 것 하나 國家의 監督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當事者의 交涉力의 강화 이것이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自由民主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제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勞動三權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으로 대변되는 것인데 이러한 勤勞者의 權益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勞動部가 과거에 어떤 教育을 해 왔으며 어떤 努力을 해왔는가에 관해서 과거의 行政을 놓고 지금 우리가 自信있게 해 왔다고 評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갖고 놀기 위해서 勞總에서 돈 몇 푼 부스러기 준 것 말고 그것은 빼고 이야기 하십시오.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점이 우리 勞動行政에서 가장

문제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勞動部에 있는 勞動部 公務員으로서 勞動部 公務員이라는 자기 職責上의 使命感 때문에 어떻게 하든 勞動者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全體政府의 綜合行政의 非民主性과 勞動統制政策에 억눌려서 제대로 자기들의 職業上의 所信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統制政策에 편리한 資料를 提供해야 되고 어쩌면 시키는 대로 어쩌든지 소리 만나게 다독거리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勞動者들을 소리 만나게 다독거리는 것은 勞動者들의 權利를 伸張시켜서 대등한 한 社會의 集團의 當事者로서 자기의 권리를 찾게 하는 方向은 不可能했고 어떻게 하든 달라고 抑壓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勞動行政公務員들의 고민이었고 個人的인 抵抗은 不可能하고 그것은 자기 밥그릇을 걸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체념하고 말았던 것이 지금까지 勞動行政의 現實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요근래에 勞動部에서 나오는 政策意志中에서 아까 李 協委員님 質問에 대해서도 答辯하셨듯이 中立性 소위 勞使教育本部입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도 中立性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中立性이라는 것은 既存狀態가 均衡을 갖추고 있을 때 거기에 照應하는 中立과 기존의 상태가 不均衡한 상태에서의 中立은 다르지 않습니까?

勞動部가 勞使間에 있어서 하나의 調整者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雙方的 힘이 對等한 상태에 있을 때의 조정일 때는 그야말로 平面的 中立이면 되고 있어야 할 理想的인 상태에 있지 않을 때 그 때의 中立이라는 것은 弱한 쪽을 복돋아서 있어야 할 상태로 끌어 올려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中立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國民學生들 타는 「시이소오」같은 것이 어른하고 아이하고 타고 앉아서 아이는 퍼뜩 들어올려가 있고 어른은 이 쪽을 깔고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한 가운데 中心을 잡아주는 것이 政府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狀況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勞使의 勢力關係를 비추어 볼 때 使用者들이 상

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使用者들도 또한 상당히 새로운 환경에 접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직까지 社會的 力學關係에 있어서 勞動者들이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社會에서 자기의 權益을 지켜나가는 몇 가지 手段이 있습니다.

物理的인 힘을 가지고 있고 法的保護를 받고 그 法的保護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物理的인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돈이 가지고 있는 社會的 支配力은 엄청납니다.

돈이면 강패를 사서 무슨 일을 벌일 수도 있고 또 눈을 떠가는 勞動者들을 매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社會通念을 支配하는 「매스콤」 支配해야 됩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勞動者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手段은 監獄가더라도 좋다하고 뛰어드는 메가지 힘밖에 없지요. 그것은 항상 감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暴力이 나오는 理由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手段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相對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울가미들을 勞動者들한테 전부 쳐놓고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가 돈이고 「매스콤」을 支配할 수 있는 노련한 技術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政府의 편파적 法的保護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成長한 자기네 力量이 있습니다. 法觀念이 거기에 存在합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제가 말하는 中立이라는 것은 政府가 아주 實質的인 中立을 취해줘야 한다. 그러면 政府의 勞動政策은 中立을 취하기 위해서 勞動部도 中立해야 하는가? 政府와 똑같은 觀點으로 中立의 자세를 견재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政府自體가 均衡을 취하기 위해서는 勞動部는 勞動者쪽에 한 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어야 비로소 政府全體의 綜合的인 政策을 實施할 結果가 表現될 때에 어느 정도 均衡을 잡을까 말까 합니다.

항상 長官께서도 더러 말씀하시지만 關係 長官會議에 가면 勞動部는 한 票밖에 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勞動部는 한 票밖에 사실 없다 政府의 거의 全部署가

아직도 舊時代의 舊時代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激動以前の 成長支援行政의 觀點을 버리지 않고 나가고 있다. 또 그 쪽을 代辯한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勞動部만 외롭게 政府內에서 勞動者들을 위해서 밀 해보려고 하는 立場에 있다 이런 점을 理解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勞動行政은 1987年 豫算과는 현저하게 달라져야 하고 1988年의 豫算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미처 정확한 勞使問題에 관한 장래에 대한 長期的인 그리고 合理的인 展望을 미처 세우기 전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豫算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988年 豫算은... 1988年 豫算이 87年 봄부터 始作되지 않습니까? 豫算編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89年 豫算까지도 88年 봄이니까 아직도 政局이 혼미한 상태가 勞使關係가 아직 어떻게 展開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意識과 發想의 轉換이 이루어지기 전의 豫算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0年度 豫算만은 이제 87年 88年 大激動期를 거치고 89년에 와서 이제 또 다시 강력한 勞動統制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신뢰받는 勞動行政을 政府가 綜合的으로 推進함으로서 다시는 또다시 統制와 暴發의 惡循環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어떤 決斷을 내려야 될 때냐? 이렇게 그 중에서 어딘가 選擇을 해야 됩니다. 물론 칼로 두부로 자르듯이 그 두 個가 명확히 區分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政府의 政策意志中에서 不法的인 勞動運動에 대해서는 철저히 團束하겠다는 公安當局이나 公安關聯部處의 意志表明이 꼭 있어왔습니다. 한 자리 數 物價 얘기도 經濟部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政府의 綜合政策에서 돋보여서는 안 된다 勞動部에서는 勞動部 自體로 이 政府의 全體政策에 있어서 均衡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자기 몫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이 豫算全體의 編成에 있어서 87年 88年 89年의 豫算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점 同意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89年 豫算이 編成될 때에는 88年 봄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큰 變化가 있을 수 없었다고 보고 88年 豫算 89年 豫算은 들 여다 봐도 비슷했습니다.

자 89年 豫算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勞使自律風土의 定着 勞使和合 분위기의 정착 이런 것들을 향한 政策意志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버려져 있었던 分野 勞動者들 權益의 向上 福祉의 向上 특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政策手段 法으로 保護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었습니다.

保護를 철저히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다음에 勞動者들의 -自覺과 覺醒 거기에 따르는 責任意識의 向上을 통한 勞使의 均衡 그 다음 이 문제를 解決하는 데 있어서 政府의 신뢰를 높히는 데도 물론 필요하고 實質的으로 勞動者들이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福祉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이 豫算에 나타난 特性을 그런 觀點에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勞使教育協會의 勞使教育本部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逆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疑心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 외에도 編成의 重點方向에 있어서 “勞使條件改善 및 福祉增進事業의 擴充” 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하나 지적을 해서 오히려 後退하고 있는 局面 적어도 客觀的으로 金額的으로 後退하고 있는 局面들을 여러군데 發見할 수 있다 劃期的인 大轉換이 있어야 할 時期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한 번 해볼까요?

“勞政事業” 그래서 이제 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歲出豫算의 構成比를 대충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同意하지 않으시겠지만 勞政事業은 本委員이 지금까지 본 經驗으로는 國會 勞動委員으로서 勞動行政에 接해 온 經驗으로는 本委員은 이 勞政事業의 大部分은 勞動統制政策에 그 相當部分이 使用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勞動者들에게 權利에 屬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義務에 속하는 것만 주로 가르쳐주고 成長爲主의 教育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흔적 또한 심하면

公安當局과의 協調關係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豫算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記憶하고 있고 教育의 目的 또한 勞動者의 힘이 걸러지기 전에 勞使組合만을 強調하는... 握手는 對等한 사람끼리 해야 한 쪽이 손이 안부스러집니다. 그런 觀點도 역시 포함해서 얘기하면 教育自體도 매우 문제가 있다 하물며 그 共產圈教育이라는 것이 그 社會勞動運動이라는 것이 아예 存在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政治적으로 매우 後進的인 상태에 있는 그런 데 가서 資本主義의 優越性만을 강조하는 教育으로 編成되어 있는 사실 자체가 바로 勞政事業의 豫算編成 自體가 또 다시 과거와 같은 方式으로 돌아간다는 하나의 徵表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勞動者들의 福祉라는 것은 資本主義의 基本原理에 대한 大幅의 修正을 意味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社會主義理論의 공격에 對應해서 資本主義가 살아남기 위해서 自體를 社會主義적으로 修正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原論의 인내가 優越하나 내가 우월하나 하는 方式의 教育을 가지고 對應하겠다 이미 世界的으로는 收斂理論이 나오고 있고 思想的으로 엄청난 激動期를 거치고 있습니다.

東歐의 變化가 資本主義의 勝利로 보십니까? 洋의 東西를 不問하고 오늘날 世界的인 큰 變化는 第3世界에 있어서의 資本主義體制의 큰 變化와 東歐의 變化라는 것은 결국 勞動者들의 權利意識의 成長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勞動者들의 각성에서부터 勞動者들의 勢力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資本主義의 勝利 社會主義의 勝利 이런 式으로 規定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共產圈研修라는 이런 黑白論理의인 方式으로 勞動問題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그런데 勞政事業은 194% 53億 增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機構가 創設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內譯을 나중에 한번 小委 때 審議할 때에 內譯을 따져보아겠습니다마는 역시 그렇습니다. 勤勞基準事業部門이 줄은 것이 어느 部門事業이 廢止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제가 是非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本部 機關運營費 쪽이 이렇게 大幅 늘어나는 것도 이것은 새로운 機構가 創設되기 때문이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產災保險豫防費로 69億원이 轉出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맞습니다. 이것은 理解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 69億이란 一般會計에서 產特會計로 가는 轉出되는 部分이 있는데 全體적으로 보아서 말하자면 職業安定事業과 職業訓練事業 이런 따위의 豫算이 0.8% 0.2%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되겠느냐? 아까 제가 지적했을 때 勞動問題가 이제 우리 社會의 周邊의問題에서부터 中心的 課題로 떠올라온 마당에 政府豫算은 19點 몇 % 增額됐습니까? 全體豫算은 19.8% 增額되는 마당에 勞動部 全體豫算은 11.1% 증액되고 그 중에서 職業安定事業이나 職業訓練事業같은 것은 0.8% 0.2% 증액이라는 것은 우선 豫算增額으로 보아도 納得이 갈 수가 없습니다.

產業構造變化에 부응하는 技能人力の 養成 雇傭安定事業의 積極적 開發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雇傭安定事業의 積極的 開發이라고 내걸었는데 雇傭事情의 變化는 지금 景氣沈滯로 인해서 失業率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事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產業構造調整이라는 韓國經濟의 全體進路가 바뀌는데 따라서 產業構造가 調整된다는 것인데 產業構造調整이라는 것은 競爭力 없는 產業의 大幅的인 도태와 경쟁력 있는 產業의 새로운 開發이지 않습니까? 경쟁력 없는 산업이라는 것은 勞動集約的 產業을 意味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大量의 失業이 發生될 素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不況 그 自體가 失業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產業構造調整過程中에서 또 失業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2重的 失業要因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雇傭安定事業의 積極開發推進은 0.8%의 增額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產業構造變化에 副應하는 技能人力の 養成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론 아까 말했듯이 失業과 轉業訓練에 대한 短

期的인 雇傭安定事業이기도 하면서도 長期的으로는 轉業訓練이라든지 또 産業構造의 變化에 따르는 새로운 人力需要에 대한 長期的 展望 아래서 訓練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韓國의 産業이 尖端産業으로 나아가고 高附加價值産業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될수록 여기에 부응되는 技能人力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거대한 産業構造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職業訓練事業에 있어서 豫算을 0.2%밖에 增額되지 않았다...

다음 産災豫防事業 이것을 産特會計 돈을 銀行에 잠채워 놓을 것이 아니고 손가락 하나라도 더 잘리기 전에 한사람 조그만 職業病 하나라도 더 걸리기 전에 産災豫防 産業의 基金을 조성할 생각보다도 現實적으로 여기에 대폭적인 技術投資라든지 이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産特會計豫算을 赤字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이 豫算法規에 많은 제약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공부하고 말씀들 드려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産特의 돈이 每年 축적되어 간다는 문제는 그럴 여유가 우리한테 있는가?

오늘날 韓國의 勞動者들이 직면해 있는 作業環境에 비추면 그럴 여유가 우리한테 돈을 지금 모으고 있을 여유가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産災保險事業의 內實化部分中에서 産特會計에서 廳舍建立費가 있는 것 같은데 各論部分이므로 그런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만 나중에 答辯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로 하고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다음 一般會計에서 昨年度에는 얼마 轉入되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10億입니다. 79億이 轉入되어서 純增이 69億입니다.

○盧武鉉委員長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을 産特으로 뺀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결국 職業訓練事業이나 職業安定事業 쪽으로 돌아 가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한 말하자면 純粹 一般會計에 관한 한 增加率이 11點 몇 %라고 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허구가 아닙니까?

내가 너무 내용을 모르고 단정적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했다가 알아 듣기 좋게 해명해 주시면 귀기울여 들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産特會計로 一般會計가 들어가 버리면 一般會計의 可用財源은 또 增加率이 둔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문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全體豫算이 가지는 성격으로 봐서 2「페이지」에 제안해 놓고 있는 90年度豫算編成의 重點方向이라는 것은 혹시 좀 허구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지적을 해 보고 나중에 잘못 지적된 부분은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여기 제일 첫번째 勞使關係安定과 관련해서 소위 상황의 변화에 따른 勞動部의 政策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行政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무엇 무엇이며 그것이 豫算上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점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먼저 盧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勞動行政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주 경청을 했고 또 솔직하게 말해서 매우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答辯드리는 것이 盧委員께서 만족할만한 答辯이 될 수 있을지 딱 걱정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答辯을 드리고자 합니다.

盧委員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87年 88年 國政에 있어서 가장 핵심부분으로 勞動問題가 부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基本的 發想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또 基本的 發想轉換에 따라서 豫算編成자체에 있어서도 「코페르니쿠스」的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提案된 90年度 勞動部豫算案을 보면 그런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감을 하고 原則的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동시에 이번 豫算案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만인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우선 물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全體豫算案이 증가된 부분에 비해서 勞動部豫算이 11.1%밖에 一般

會計部分에서 증가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勞動行政이 적어도 勞動問題가 國政의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로 등장하게 된 데 대한 發想의 전환이 없다는 것을 사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하면 政府는 政府대로 또 豫算은 豫算案의 구성 혹은 編成에 있어서 政府 나름대로 일종의 慣性이 있고 또 慣性의 法則에 따라서 이상하게 「메카니즘」으로 이루어져서 昨年對比 昨年對比로 갑니다. 아주 저도 그것이 불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勞動部豫算을 보니까 똑 같아요. 昨年對比 昨年에 이것을 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어떻다 그것이 第6共和國 수립한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아마 前任長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막 달리는 車가 갑자기 멈추어 놓고 보니까 끌려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메카니즘」때문에 또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부분은 그게 匡正되지 못했습니다. 시정되지 못한 채 역시 그 「메카니즘」대로 豫算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豫算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勞動部가 제안하는 몇 가지 重點施策에 준해서 豫算編成事項을 보더라도 基本的인 發想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教育部門에 대한 豫算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제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盧委員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行政을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教育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쓰는 식칼이 음식을 자르면 그것이 좋은 요리용 칼이지만 그것을 사람을 해치는 칼로 사용하면 흉기

가 되는 것처럼 勞使教育도 盧委員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成長政策의 補助的機能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의 勞使教育 그런 방향으로 教育을 할 때에는 분명히 커다란 問題點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새로운 發想 아래에서 가령 勤勞者들에게 준법을 하면서도 勤勞者의 권익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얻어낼 수 있는 가령 勞動運動技法의 教育이라든지 당연히 알아야 할 권익을 찾아야 할 부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教育을 하면서 동시에 使用者들에게도 勤勞者들을 一方的인 權威主義的인 방법으로 부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일변도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勞務管理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등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基本的으로 勞動問題가 國政의 최대의 급선무로서 부상한 데 대해서 미치지 못한 한정된 豫算이라 하더라도 또 勞使關係 教育費라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다는 못 얻더라도 일부나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勞政事業部分이 190.4%의 과대 예산이 책정되었고 職業訓練事業등에 대해서는 0.8% 0.2%의 거의 증액이 없는 담보상태 또 產災豫防같은 데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豫算이 투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原則的인 문제에 대해서만 答辯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關係當局과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職業安定事業 職業訓練事業과 관련해서 韓國의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雇傭의 위기 또 그것 이외에도 經濟的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投資「마인드」들이 줄어들어 가고 經濟的으로 난관에 부딪히면 또 자연적으로 생기는 雇傭의 어려움 등등을 생각해서 보다더 職業訓練事業을 강화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역점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豫算이 공정히 배정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關係局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產災豫防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産災豫防은 그래서 産業 災害保健法을 지금 成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一般豫算에도 절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선 의무적으로 産災保險에서 50%로 基金을 해서 豫防에만 전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을 法案을 成案을 해서 立法豫畵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안해 주려고 해요. 우선 그것만이라도 法制化해 가지고 産業災害豫防에 힘쓸 생각입니다.

職業安定事業과 職業訓練事業과 관련해서 豫算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와서 보니까 基本的으로 십수년전에 했던 技能人力에 대한 教育 또 職業訓練이 전혀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設備 機資材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 것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전혀 적응을 못했습니다. 老朽設備을 바꾸는데 豫算이 來年度에 110億정도밖에 計上이 안되어 있고 來後년에 100億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不知何歲月입니다. 그런데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構造的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雇傭이 말하자면 失業者가 대량 생길 가능성이란 것이 勞動集約型的 産業이 거의 外國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外國投資쪽으로 돌리면서 대량 失業事態가 생기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생김과 동시에 새로운 雇傭도 창출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情報産業部分과 3次 서비스産業部分에 상당히 생겨나는데 그러면 職業教育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탈바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인 教育의 커리큘럼을 조정을 하고 雇傭에 대한 轉業教育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雇傭이 창출되는데에 따르는 적응교육도 아주 급하게 생각되어서 勞動研究院과 關係機關에다가 전체적인 教育커리큘럼과 새로운 産業에 적응할 수 있는 人力養成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豫算이 今年豫算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못되었는데 91年豫算에라도 뒤늦었지만 다음 豫算編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이번 豫算에 있어서도 委員님들께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숫자적으로 구체적요인 것은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室長님께서서는 제가 각론에 관한 答辯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모르면서 잘못된 전제위에서 質問한 것이 있으면 그 해명성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利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企劃管理室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盧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來年度 豫算編成에 있어서 저희 一般會計가 11.1%밖에 增加되지 않아서 政府 一般會計 전체 增加率 19.8%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지만 未反映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實際額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과소책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職業安定事業이 0.8%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디만 이것은 事業量減少가 主要原因인입니다.

즉 專門人力就業情報센터가 今年에는 2個所를 증설했는데 來년에는 1個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純減少가 7,900萬원 또 海外勤勞者 慰問品이 자연적으로 海外勤勞者가 감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約 1億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減少原因이 되었고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職業訓練事業이 상당히 金額이 全體적으로는 많은데 0.2%밖에 增加하지 못한 것은 지난번에 追更豫算때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디마는 IBRD 3次借款元利金を 19億원을 今年에 豫備費에서 이미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졌고 그 다음에 3個訓練院이 마감공사 또는 年度가 1年 연장되는 바람에 今年度豫算보다 7億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한 農工職業訓練院의 훈련장비보강이 今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23億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사업이 年度가 늘어나거나 마감이 되는 성격때문에 크게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光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리고 저희들이 勞使關係安定을 위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豫算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長官님께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우리 社會가 겪고 있는 심각한 勞使問題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도 分配의 不均衡으로 인한 勤勞者들의 소외감 그리고 각종 勤勞條件의 改善問題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勞使問題의 基本的인 解決方案은 勞使當事者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自律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政府에서는 勞動問題의 원인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勞動政策을 연구 개발하고 나아가서 勞動問題의 새로운 價値觀定立을 위해서 여러가지 事業을 今年度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長官님께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각입니다. 첫째가 勞使間의 제반 문제를 體系的이고 科學적으로 분석하고 勞動政策을 開發하기 위해서 韓國勞動研究院에 20億원을 지원할 計劃으로 되어 있고 勞使教育의 中樞機關으로서 勞·使·政이 共同出捐하는 財團法人 韓國勞使教育本部에 12億을 出捐했고 勤勞者 共產圈 海外研修를 실시해서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과 共產社會의 實相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200명에 대한 海外研修를 計劃하고 있고 또한 韓國勞總에서 주관하는 地域勤勞者研修所 運營에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增額된 4億9,000萬원을 지원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또한 韓國勞總 教育院 新築費로 90年 豫算에 30億원을 計上한 것 등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勞使關係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報告 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눈치도 되게 없습니다. 지금 共產圈 研修問題를 놓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웃음 소리)

싸움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만 제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李委員님께서도 共產圈 研修問題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것 잘한다고...

그러면 各論 부분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께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은 小委에서 따지기로 하고 共產圈 研修關係를 勤勞者들이 볼 때는 혹시 오해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行先地의 선정을 기왕에 勤勞者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勞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생각해 봅니다. 안 그러면 각아 버려든지... 幾百名 데리고 中國가서 한 바퀴 휩 들고 오면 신세를 좀 졌다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어떨습니까? 어차피 勤勞者 組織을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合理的인 대화의 當事者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政府가 보고 있기로는 勞總은 합리적인 대화 당사자로 가능성이 있고 全勞協은 不純勢力이라는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보기에는 不純勢力이 아닙니다. 하지만 政府는 不純勢力이라고 보니까 굳이 강요는 않겠습니다. 政府가 編成하는 豫算에 이 돈 全勞協 주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勞總을 勞使關係에서 건전한 대화의 당사자로 한다면 적어도 行先地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勞總의 의견이 매우 높이 반영되어야 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勞總을 고깝게 봅니다. 그것 御用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盧委員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李 協委員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勞總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1陣은...

○盧武鉉委員 勞總이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 政府가 인정하는 勤勞者 團體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勤勞者의 의견을 代辯하고 또 勞總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

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협의를 해 보시고 기왕에 共産團이란 원칙은 포기 못한다고 하더라도...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도 저희들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盧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行先地를 달리 바꾸어서라도 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바꾸지요.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盧武鉉委員** 그래서 共産團을 벗어나는 것도 좋겠고 못 벗어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勞動問題도 좀 배우고 이렇게 여러가지 자기들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제가 勞總한테 생색을 내도 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에 勞使教育本部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러가지 教育機關과 중복된다는 점은 李協委員님께서 지적하셨고요. 重複性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해소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定款을 보니까 이 定款이 정말 中立性이 확보될 수 있는 任員構成을 보장하고 있느냐 이점은 저도 문제 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當然職으로 政府 次官이 두분 들어와 있는데 한 분은 勞動者 편은 아니거든요 勞動部次官은 믿을 수가 없고 經總代表가 있고 勞總代表가 있단 말이지요. 當然職은 그런데 그외에 다른 숫자에 관해서는 比率에 관해서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勞動者 편은 勞總委員長과 勞動部次官 두 사람뿐이고 그 밖에는 經總하고 經濟企劃院次官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經總에서 세 사람 勞總에서 세 사람 아마 그렇지요.

○**盧武鉉委員** 그런데 그것이 比率을 딱 그렇게 고정시켜 놓지는 않았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고정시켰습니다.

○**盧武鉉委員** 이게 理事會規定인데 定款에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못박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定款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것은 勞使教育案인데 이 구성을 적어도 勞動者쪽 代表나 勞動部가 얼마

만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勞動部도 불신합니다. 그러나 勞動部라도 그 둘을 보태면 過半이라도 확보해야지 經營者쪽하고 政府 내부에서도 政府代表에 經濟企劃院次官 商工部次官 들이면 평소 1 대 1이라도 낫발이 센쪽 사람인데 이것은 政府 내부에 2 대 1이지 않습니까? 이것 勞動部 豫算 갖고 하기에는 역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中立性 中立性 하는데 제가 中立性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왜 이 문제를 굳이 지적하느냐 하면 勞動者들이 勞動者 의견이 언제든지 반영될 수 있다거나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信賴形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教育의 효과라는 것은 신뢰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니까... 이 機構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앞으로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둘째로 두고 현실적으로 勞動者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 또 第3者라도 이것은 믿어도 좋다 勞動者들의 이익을 代辯할 것 다라고 적어도 偏頗的이지 않다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制度的 保障이 說得力을 갖는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本委員 개인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豫算編成을 반대할 의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장 좀...

그 다음에 勞使安定委員會 문제는 지금 우리 勞使問題에서 거듭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불신이거든요. 과거의 유쾌하지 못한 경험 때문에 勞動者가 政府를 불신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勞總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勞使安定委員會를 왜 굳이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여야 되느냐 한 발 물러서서 내년에 해도 좋고 굳이 한다면 政府가 貨金 「가이드라인」 내놓으려면 화끈하게 우리 政府는 이렇다 하고 내놓지 굳이 勞總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느냐 勞總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든지 政府 쪽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전체 勞動者들의 신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변

화하는 과정에서 勞總이 전체 勞動者들에 대한 指導力을 유지하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바가지들 안 쓰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 굳이 勞總을 끌어들이려 하며 이런 것을 만드느냐 여기에서 道德的 權威를 찾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勞總을 끌어 넣으려 하고 이것을 勞動研究院이라는 機關에다가 附設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道德的 權威와 正統性을 가지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제대로 먹혀들어갈지는 그런 점에서 勞使安定委員會의 豫算이 노리고자 하는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불필요한 豫算이 될 우려는 없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先進諸國에서 勞動者團體가 國際的인 행사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活動費같은 것을 政府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지금 일부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저는 外交에 관한 한 勞使의 문제가 아니고 總力外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勞動外交라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政治的 的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勞總이 輸入開放이라든지 美國의 保護貿易主義같은 데 있어서 議會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美國의 勞動者 세력도 중요한 것의 하나라면 勞動外交같은 것도 의미가 있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國際的인 활동을 勞動者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소위 總力外交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勞總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기에 財政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 다른 外國의 先例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勞動外交 부분에 國家的 的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豫算이 반영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勞動教育이라는 부분도 政府가 자꾸 의심 받으면서 勞動教育을 추진하는 것보다 勞總으로 하여금 맡도록 하고 勞動教育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돈을 지원합니다. 中央研修院을 지원하고 教育活動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하는데… 작년보다 깎인 데가 있지요? 작년 6個月 豫算이 5億3,000萬 원 됐는데 올해는 1年 豫算이 4億9,000萬

원밖에 안 올려 놓은… 없으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開設때와 運營費가 조금 다릅니다.

○盧武鉉委員 開設을 왜 중단하느냐 하는 말 하자면 總括的 的 지적입니다. 그래서 勞動外交 부분하고 勞動教育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勞總이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政府가 勞總조차 믿지 못하면 全勞動者 세력을 政府의 敵對勢力으로 세워 놓고 싸워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勞總을 教育의 담당자로 만들어서 緩衝해 나가고 勞使關係의 안정도 勞總의 教育을 통해서… 勞總의 教育이 강화돼서 產業民主主義의 教育이 강화되면 소위 革命的 組合主義라든지 政治組合主義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勞動者들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教育의 방향을 개선했다면 좋겠다 굳이 의심 받아가면서 이런 저런 教育機關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맡기고 저기도 맡기고 할 게 아니라 화끈하게 한번 생색도 내고… 저는 그런 의견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機關運營에 있어서 情報費나 勞政事業에 있어서의 情報費… 人件費的 情報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辦公費的 情報費 勞使紛糾 豫防이나 勞使和合 추진을 위한 豫算 중에서 懇談會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성과를 거두려면 信賴性하고 문제가 되는데 信賴性이라는 것은 오늘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바로 信賴性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信賴性을 쌓아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오랜 세월 불신만을 받아오고 있는 입장에서 차라리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勞動部에서 고생하는 公務員들에 대한 人件費的 辦公費 성격으로… 기왕에 情報費 項目으로 붙었으니 人件費的 情報費 項目으로 이중에 일부 指揮活動費같은 것은 제껴 놓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地方官署에서 自律的으로 쓸 수 있도록 풀어주면서 情報 또는 工作的 차원에서 統制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적어도 뼈뺀 野黨 議員한테라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公務員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길게 質問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알겠습니다.

勞使教育本부의 中立性에 대해서는 李 協委員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會長으로 選任된 趙澈權씨의 黨籍 문제는 곧 조정을 할 것입니다.

盧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經濟企劃院次官하고 商工部次官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勞動者 편의 숫자가 모자라지 않느냐 왜 이런 사람들을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以實直告하면 豫算 좀 따라 되겠고 또 經總에서 出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商工部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經總에서 돈 안 댁니다. 그래서 집어 넣은 것이시 결코 偏頗的인 教育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運營은 정말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勞使安定委員會에 勞總을 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사실대로 얘기하면 勞動部로서는 당초에 國民貨金調整委員會 때는 勞總이라도 꼭 들어와서 우리 勞動部하고 함께 해 주기를 굉장히 바랐습니다. 워낙 衆寡不敵이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勞動部로서는 勞總이 꼭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데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公益委員들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勞總支援問題에 대해서는 이번에 盧委員님이 걱정하여 주신 대로 우선 外交活動에 대한 지원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豫算 대비하면 39億5,800萬원을 늘렸습니다.

勞總에 대해서는 건전한 勞動運動을 대표하고 있다고 政府는 보고 勞組幹部教育支援하는데 우리가 2億7,700萬원을 넣고 研修教育院新築하는데 30億 넣고 또 獎學事業에 20億 넣어가지고 總豫算이 이번에 57億9,300萬원이 計上이 되었습니다. 外交活動의 支援問題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情報費使用에 대해서 전번 國政監査때도 盧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뭔가를 잘 알

았습니다. 그때도 알아서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情報費配定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에.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開議한 지 두 時間한 50분이랑 되어갑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7分 會議中止)

(17時28分 繼續開議)

2. 豫算案審査小委員會構成의件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다루고 계시는 豫算案에 대한 審査小委員會를 먼저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各黨間의 幹事會議에서 협의의를 마치고 委員 추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民主正義黨所屬의 安瓚熙委員 李康熙委員 平和民主黨所屬의 李 協委員 統一民主黨所屬의 盧武鉉委員 新民主共和黨所屬 金炳龍委員 이렇게 다섯 委員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순서에 따라서 小委員長에는 盧武鉉委員으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데 異議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宣布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려 들 것은 豫算案審査小委員會는 내일중으로 개의하셔서 임무를 다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3. 1990年度豫算案(계속)

가. 勞動部(계속)(質疑)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계속해서 質疑로 들어가겠습니다.

新民主共和黨의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地下鐵 勞使紛糾問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長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어제 밤을 새우면서 勞使雙方間에 團體交涉을 풀려고 했습니다마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일단 오늘 새벽에 모두 헤어졌다가 오늘 저녁에 다시 勞使協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알았습니다.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豫算問題로 해서 지금 政府豫算案에서 各黨에서 지금 거의가 2兆億원에서 1兆億원을 삭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黨의 방침으로 紙上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各黨에서 그와 같은 액수를 삭감시키는데 있어서는 各部處의 豫算을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勞動部로서는 만약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또한 그나마라도 없는지에 대해서 長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저희 勞動部로서는 아까 두 委員님께서도 지적이 제셨듯이 一般會計部分에 있어서 全體豫算의 昨年對比 引上額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11.1%밖에 되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이 제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全體的인 규모가 적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한푼도 안 깎아지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炳龍委員** 저희가 봐도 깎을 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액을 하면 했지...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勞動部에서 어제 신문에 나온 사실인데 조금 관계된 문제입니다마는 근로감독관을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勞使指導를 한다 이런 강력한 대책 지시가 勞動部로서 있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되었는데 어떤 對策으로써 그러시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계획은 來年度에 가서 勤勞監督官의 권한문제에 있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勤勞監督官權限을 強化해 가지고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勤勞監督官이 準司法權까지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勤勞監督官이 勤勞基準法에 의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업무

만 해야 되는데 양쪽일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로부터도 혹은 사용자들로부터도 모두 비난을 받는 서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金炳龍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豫算案에서 27페이지에 보면 産業災害勤勞者子女의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88年度에도 10億정도였고 今年에도 10億정도로 豫算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昨年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産業災害勤勞者生活定着金에 있어서도 昨年에 10億今年에 또 10億인데 昨年하고 거의 비율을 같이 해서 그 분들의 모든 대책문제를 원할히 해결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간단히 答辯드리겠습니다.

産災勤勞者子女獎學事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獎學基金造成事業입니다.

그래서 獎學基金으로 매년 10億원씩 積立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년까지 70億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億원의 수익금을 가지고 來年度에 2,386名에 대해서 장학금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150億원까지 기금을 확대해 나갈려고 계속적으로 매년 10億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産災勤勞者生活定着金貸付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億씩 해가지고 今年까지 30億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昨年度 追更으로 財特에서 100億원을 出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會計에서는 30億원이 현재까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財特의 100億원 합쳐서 현재 130億원이 되고 있고 이것도 계속 늘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가면서 수익금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러면 장학사업에 대한 기금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勤勞福祉公社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生活定着金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그것도 勤勞福祉公社에서 福祉事業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國際職業訓練事業”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봉」에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나라에 그와 같은 3億정도 되고 1億정도 되는데 지원함으로써 어떤 國家間의 頂上間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職業訓練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하고 「가봉」에 각각 기술지원명목으로 일부 전문가 파견 그리고 研修生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일부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규모의 國際協力事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비 모두가 우리 국산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장비를 이용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산업사회에 나가가지고 간접적으로 저희 장비를 갖다가 선전하고 활용하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받아 들이는 연수생들이 국내에 와서 국산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經濟的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雇傭促進事業에 대해서 이것은 내용을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약 50億정도 투자하는데 실적과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勞動部職業安定局長 孫元植 職業安定局長 孫元植입니다. 答辯올리겠습니다.

실업자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대상은 休廢業으로 실직된 근로자나 또 생활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훈련시킬 동안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니까 한달에... 자기의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4萬5,000원에서 보통 8萬5,000원까지 수당지급을 하고 우리가 훈련을 실시할 때는 공공직업훈련원이나 認定職業訓練

院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하는 실시기간에 훈련생이 내야 될 훈련비를 政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에 49億 그리고 去年에 그래 가지고 今年에 1萬名정도 훈련목표를 했고 來年에 50億4,000萬원 가지고 1萬2,000名을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실직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실업대책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炳龍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러한 짧은 기간 훈련을 받고 나면 직업알선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職業安定局長 孫元植 예. 취업알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런데 金委員님 이것이 훈련수당이 1人當 4萬원에서 4萬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豫算에 50億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1人當 4萬원에서 4萬5,000원 이것 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좀 기회가 있으시면 委員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人當 최소한 6萬원 내지 7萬원은 들어가야 아주 위급한 것을 면하겠는데요.

○金炳龍委員 문제는 그렇습니다. 50億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성과와 실적이 뚜렷하고 그만큼 투자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증액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감사합니다.

○金炳龍委員 韓國勞動研究院 運營에 대해서 약 20億이 책정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金炳龍委員 去年에 18億인데 勞動研究院이 그동안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실적과 성과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擔當局長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金炳龍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韓國勞動研究院은 급변하는 産業社會 여건변

화에 따라서 勞使關係 및 勞動問題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勞使間의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서 勞使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勞動政策을 개발수립하고 연구결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勞動問題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今年까지는 研究院 설립 초창기로서 우선 최근의 勞使紛糾와 관련된 문제해결과 고용 및 인력개발 임금 및 근로조건 勞使關係分析 勞動法制 그리고 所得分配問題와 社會保險 등 昨年에 10여개 과제와 今年에 20여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13個 課題는 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課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行政府 立法府 勞使團體 言論界 등에 배부해서 勞動政策開發등을 지원하고 각종 세미나와 討論會를 통해서 勞動問題에 대한 國民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韓國勞動研究院이 하여야 할 역할을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좋습니다.

10페이지에 勤勞者의 날 行事豫算이 8,200萬원으로 작년하고 같은데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요? 왜 그러나 하면 지금 韓國勞總을 중심으로 해서 產業別 聯盟의 組合員數가 아마 배가 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豫算도 기왕에 政府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勞動部長官 崔永喆 사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上向策定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委員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그 밑에 勞動外交에 있어 이것은 政府가 勞動外交로 사용하는 金額으로 생각이 되는데...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ILO總會 經費가 거의 전부인데요. 이때는 勞總代表도 함께 잡니다.

○金炳龍委員 조금 전에 盧武鉉委員께서도 勞動外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ILO 加入支持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만이 이러한 막대한 돈을 사용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勞動關係의 國際會議 또는 國際세미나 등 勞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會議가 있다고 하는 것은 長官께서도 잘 알고 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豫算을 상당 부분 勞動界에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활발한 外交活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美國과 輸出問題로 해서 여러가지 業種間에 마찰이 많습지만 勞動組合도 國際會議에 나가면 그러한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勞總을 중심으로 해서 外交에 필요한 豫算을 상당히 그쪽으로 돌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長官께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永喆 1億4,600萬원의 勞動外交는 ILO 加入 支持基盤擴充에 1億1,600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金炳龍委員 이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떼어서 그리고 넘긴다는 것은 안되지요. 다른 부분에서 만약 있다고 하면 小委員會에서 저희가 참고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勞使教育本部라는 새로운 組織案이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완전히 결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2億의 豫算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政府로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勞使教育本부의 事業目的을 보면 勞動研究院에서 하는 事業하고 동일한 事業을 하는 機構도 있습니다. 研究라든지 國際協力關係라든지 이렇게 勞動研究院에서 하는 事業이 2重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長官께서 깊이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勞使教育本部運營費로 12億이 計上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補助金 성격을 띤 것입니다. 그것은 政府 部處間에 약간의 異見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왕에 教育本部를 새로이 創設해서 勞使教育을 本格化하려면 法定團體로서 法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部處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그냥 法人體로 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이어서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일단 補助的인 성격의 豫算으로 12億300萬원을 計上했고 가능하면 法律案이 마련돼서 部處間에 의견이 조정되고 그럴 경우에 정식으로 法을 通過시켜서 정식 法定經費로 할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꼭 通過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러니까 豫算을 通過시켜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勞動部長官 崔永詰 通過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金炳龍委員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長官께서도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小委員會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民主正義黨 李台燮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台燮委員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볼려고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습시다만 우선 質問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同僚委員과 長官의 勞動行政의 哲學에 대한 소신 피력이라 할까 攻防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90年度 豫算編成에 대한 哲學에 대해서 長官이나 존경하는 同僚委員이나 다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제 귀에 딱 떨어지는 代案이 없었다 이거예요. 비판은 좋은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攻防으로 그치게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 提案은 勞動研究院에 시켜서 앞으로 勞動行政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豫算은 어떻게 編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用役을 주어서 좋은 案을 하나 만들도록 提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長官께서 87年6月29日 이전에는 勞動行政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해가 안되는 바도 아닙시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6·29宣言 이후에는 우리나라 勞動運動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長官이 꼭 대답해야 될 문제가 아닌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東歐圈에서의 변화가 資本主義의

승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은 분명히 共產主義에 대한 資本主義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本委員 생각으로는 우리 經濟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勤勞者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일에 협조하고 참여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필리핀」같은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大量의 失業이 생긴다든지 物價가 天井不知로 올라간다든지 굶은 國民이 수없이 생기는 그러한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세 분 委員께서 전부 勞使教育協會라고 하셨는데 그게 本部하고 訂正은 하셨습니다만 그게 도대체 무슨 組織인지 12億 豫算 補助해 주는데 무얼 쓴다고 한 補助에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長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 勞使教育本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테니까 長官께서는 이게 필요한 組織이라고 하면 소신있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委員이 다 지적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機關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해답이 아직 없어서 우선 그 12億 豫算을 어디에 무슨 名目으로 보조를 하려고 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詰 먼저 앞으로 勞動行政의 방향 그 다음에 豫算編成의 큰 指針같은 것을 勞動研究院에 用役을 주어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李委員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經濟가 成長되어야 한다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經濟成長 없이는 勤勞者들의 福祉도 이것도 저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安定속의 成長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도 異論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勞使教育本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서 委員님들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勤勞者와 使用者에 대한 教育은 몇 갈래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使用者들에 대한 教育은 經營人總聯合會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勤勞者들에 대한 教育은 韓國勞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군데 다 政府에서 支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勞使教育本部에만 政府가 支援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勞使關係의 教育에 대해서는 다 政府에서 支援金이 나가고 있습니다. 經總도 政府支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教育을 이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使用者들에 대한 教育을 하고 있는 經總에서는 철저하게 勤勞者들의 爭議行爲라든지 혹은 勞動運動에 대해서 무슨 방법으로 누르고 대응하느냐 하는 데 대한 技巧 혹은 教育만 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主宗은 주로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勞總에서 실시하고 있는 勤勞者들에 대한 教育은 또 철저하게 爭議技法 教育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는 말하자면 兩者間의 對應論理의 教育 싸움을 위한 教育으로밖에 발전될 수가 없다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教育方式을 勞使雙方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教育을 시키는 그래서 勞使共存의 논리를 教育시키는 방법이 産業平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勞使教育本部를 새로이 발족시키기로 하고 지금까지 經總과 勞總에만 주어 왔던 教育에 관한 支援을 勞使教育本部에도 주기로 하고 지금 12億원의 豫算을 計上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勞政局長으로 하여금 豫算內譯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結論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委員님들께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勞使教育本部를 支援해 주시고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擔保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下半年 지금 11月과 12月 그리고 내년 1年 동안 집중적으로 教育을 시켜봐서 정말로 教育效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생

각으로는 좀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勞使教育本部가 試驗的 차원에서 먼저 1年 2個月 동안을 실시해 보려고 최소한의 經費를 計上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通過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使教育本부의 來年度 豫算要求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總 豫算要求額은 12億250萬원입니다. 그중에서 人件費가 5億8,100萬원 教材開發費가 1億5,500萬원 經常運營費가 2億300萬원 그리고 勞使合同課程研修費라든지 地方巡迴教育費라든지 이런 教育費로 4億1,500萬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李台燮委員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필요한 組織감기는 한데 經營者들이 하던 教育 또 勞總에서 하던 教育 그 中間에서 平衡을 이루는 教育을 해보는 그런 機關으로 만들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勞動部가 여러가지 豫算에 教育이 많이 있는데 勞動研修院에서는 지금 뭘 教育을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動研修院에서는 주로 勞動行政 公務員에 대한 職務教育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勞使合同課程을 試驗的으로 設置運營하고 있습니다.

○李台燮委員 그래서 勞動部가 教育을 어느 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文敎部보다도 오히려 더 방대한 教育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各 勞動關係教育을 하고 있고 職業教育을 하고 있고 大學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教育이 많습니까!

순전히 勞使教育만 하더라도 勞總을 통해서 中央教育院 新築補助도 30億 나가고 있고 勞總 地方에 있는 勤勞者研修所 그것도 또 補助를 하고 있고 또 勤勞女性教育에 1億6,000萬원 준다고 되어 있고 勤勞監督官도 또 法務部에 보내고 公認勞務士도 教育하고 있고 教育이 여러가지가 아주 多樣하고 雜多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勞動部 本部에서 여러가지 하고 있는 教育을 全體로 생기고 관심을 가지고 勞政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勞使教育本部가 發足이 되고 활발하게 活動

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 「파트」라도 맡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全般的인 技術教育 그 다음에 雇傭에 대한 教育 여러가지 教育이 있으니까 全體的으로 體系的으로 어느 委員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衡平에 맞는 體系的인 哲學을 정립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失業者教育 雇傭促進訓練이다 해서 아까 50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失業者에 대한 促進教育이 됩니까? 그것을 좀 說明해 주세요.

○勞動部職業安定局長 孫元植 說明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勞動部 各 地方事務所에서 失業者에 대한 파악을 하고 登錄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그것을 訓練院 傘下에 있는 職業訓練院에다가 위탁해서 訓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手當은 그 地方事務所에서 支給하고 있습니다. 本部에서는 支拂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台雙委員 같은 地域에 있는 職業訓練所겠지요. 職業訓練所가 勞動部 地方事務所 傘下에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職業安定局長 孫元植 管理公園傘下에도 있고 勞動部에서 認可해준 認定職業訓練院이 있습니다. 認定職業訓練院에 위탁해서 實施하고 있습니다.

○李台雙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技能人優待風土造成이라는 項目에 26億이 策定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技能獎勵法을 通過시켰지 않습니까? 그 法에 의해서 基金造成을 하게 되어 있는데 90년에서 93년까지 500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長官께서 200億 하겠다 하신 것처럼 말씀이 들리는데 來年度 豫算에 한 분도 計上이 되어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 안 된 理由가 무엇인지? 勞動部에서 企劃院에다 얼마 하겠다고 냈는데 企劃院에서 꺾였는지 어쨌는지 그 자세한 內容을 說明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技能人들이 좀 우대되는 風土속에서 士氣가 높여지는 社會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技能獎勵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의 勤勞者들이 하나의 職業人으로서 자기가 맡은 分野에서는 철저하게 專門家가 되고 世界水準의 機能을 가지겠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勞動部 當局에서도 이러한 認識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技能獎勵法을 制定한 機構에 政府가 充實하고 그것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勞動部長官도 같은 見解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報告드리겠습니다.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基金造成은 500億 目標로 저희들이 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만 技能人 優待風土造成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來年度 豫算에 93년까지 500億을 基金으로 造成하기 위해서 100億원을 要求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經濟企劃院側은 基金造成하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니까 財政形便이 어렵다 그러니까 豫算으로 거기에 필요한 費用은 전부 계속적으로 支援하겠다 그러니까 豫算으로 하고 基金은 좀 留保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長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우선 200億원 정도의 基金을 마련하는 案을 調整案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200億원을 조성하도록 해서 每年 50億원씩 93년까지 200億원을 조성하는 그러한 方案을 지금 調整案으로 내놓고 協議를 하고 있고 이것은 總理室까지 調整協議가 되어서 거의 確定段階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台雙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億이 조성되면은 500億까지 올리고 500億도 부족하면 더 올려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劃期的으로 技能人들이 自矜心을 가지고 社會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 해가지고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역시 아까 여러 委員들께서 말씀하셨습시다라는 發想의 전환을 해서 이왕 하려면은 아주 大 大의인 각오와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平和民主黨所屬 韓光玉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이제 많은 委員들께서 質疑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豫算關係에 관한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요즈막에 新聞을 보면 아까 李 協委員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지마는 참 새로운 勞使關係에 있어서 어지러운 정도로 爆彈의인 對策이라든가 어떠한 政策發表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長官께서는 長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發表가 나온 것 같다. 또는 勞動部 自體內에서 잘 모르는 것이다 答辯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가지 疑問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勞使紛糾特別對策本部는 構成이 됐습니까? 發足은 됐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우리 勞動部次官을 本部長으로 해가지고 經濟企劃院 商工部 動力資源部등 關係部處의 局長들로 해서 곧 發足을 합니다.

○**李台燮委員** 그런데 이 發足하게 된 背景은 무엇입니까? 例를 들어서 이제까지 이러한 機構가 없어가지고 어떤 勞使紛糾를 수습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來年에 豫想되는 勞使紛糾가 상당히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하에 미리 豫防을 하기 위한 하나의 對策機構로서 發足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이 갑자기 이런 機構가 발족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中금한대요. 그 배경을 좀 說明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를 들면 가령 石炭產業合理化計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動力資源部가 中心이 되어가지고 實行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失業이 생겨나는데 그 失業者들에 대한 對策이라든지 滯拂可能性에 대한 것은 勞動部에서 해야 되어서 이것이 協力이 잘 안 이루어질 部分이 있습니다.

또 가령 保健社會部의 경우에 診療妨害들이 일어납니다. 勞使紛糾가 생기면은 診療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勞使紛糾가 勞動部하고도 관계되고 保社部하고도 관계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行政的으로 管掌하는 部署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主管部署와 관계되는 行政的인 協調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觀點에서 우선 그때 그때 「케이스 바 이 케이스」로 어느 部署와 어떻게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마는 交通部 動力資源部 商工部 保健社會部 關係局長하고 特別對策本部를 運營하도록 合意를 본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그런데 案에 보니까 勞動部內 勞使紛糾 機動班 3個班을 구성한다 또는 3年間 3회이상 爭議가 發生했거나 在野團體와 連繫되어 있는 業體 500餘 곳에 特別指導監督을 한다 그런 案이 되어 있지요? 지금... 特別指導監督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이 500個 業體라는 것이 勞使紛糾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脆弱點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使用主들이 勞動勞條件을 제대로 갖추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紛糾의 素地를 미연에 防止하자 그러니까 例를 들어서 勤勞管理體制를 더 強化하도록 가서 독려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每年 紛糾가 일어나는 事業體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勞務管理責任者에게 性格的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당연히 해주어야 할 厚生事業같은 것을 안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問題事業體를 전부 「리스트업」하자 그래서 대개 抽出해 보니까 500業體 나왔습니다. 계속 돼요 그런 데는 그러면은 계속 가가지고 常時 點檢을 해서 가령 厚生事業을 해 놓아라 했는데 안 한 데는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勤勞監督官들이 數가 모자라니까 적당적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電算化를 가능하면 來年까지 다 해가지고 「컨펌」하고 그러기 위한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機動班을 運營한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機動班을 3個班을 運營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전부 다 現場에서 解決하는데요 長期化되고 大型化되는 그런 勞使紛糾에 대해서는 勞動事務所만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本部의 課長을 班長으로 해가지고 가서 本部하고 「레이총」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때그때 잘 解決할 수 있는 紛糾解決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質疑하는 의도는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뜻에서 發足한 것같은데 勞使紛糾 特別對策이라고 하는名稱을 보니까 소위 勞使紛糾을 防止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온 소위 勤勞者들의 自律的인 勞組活動을 抑制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말이라도 機動班 이것은 무슨 「데모」라는 機動隊 비슷해가지고 그러한名稱 하나하나가 新聞紙上에 發表됐을 적에 勤勞者들에게 주는 느낌 그 반응은 어떻겠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가지 勞動問題 勞使紛糾을 다루는 勞動部의 立場 視角은 이러한 寓話로써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슴」 寓話에 보면은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神士의 外套를 벗기기 시합을 하는데 바람은 세계 불어닥치니까 자기로서는 외투를 벗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바람을 불어 봤지만은 오히려 센 바람일수록 外套를 벗는 것이 아니고 더 움켜잡는 그래서 외투가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해가 옆에 있다가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주었을 적에 그 사람이 더워가지고 외투를 벗는 그러한 寓話가 기억이 납니다. 勤勞者들의 勞使紛糾問題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어떠한 경고적인 그러한 對策과 心理的인 영향으로서 그들의 勞動運動에 조금이라도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선 이런 用語 하나하나가 대단히 本委員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문제를 提起했던 地方委의 결정은 新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地方勞動廳에서도 調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長官계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東洋經濟新聞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완전히 經營主 쪽에서는 아직 미동도 않고 있고 廢業狀態입니다.

○韓光玉委員 그것이 不當勞動行爲라고 地勞委에서 判定이 내렸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地勞委에서 不當勞動行爲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마 復刊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司法的인 처리를 결국은 해야 될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失業者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不當解雇된 사람들... 여기에 대한 對策은 우리 서울地方勞動廳에서 충분히 調査도 해야 되겠고 調査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措置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묻는 것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韓光玉委員님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그 東洋經濟는 현재 廢刊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현재 失業狀態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法的인 救濟措置는 司法處理를 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方法이 없습니다.

○韓光玉委員 우리 勞動部로서는 전혀 거기에 救濟할 수 있는 方案은 없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일단 廢業한 業體를 저희 勞動部 힘으로써는 다시 門을 열도록 하는데는 限界가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司法機關의 判決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알았습니다.

來年度 豫算案에 대해서 아마 總括的으로 여러 委員들께서 質問을 하시고 本委員도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全般的으로 評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來年度의 豫算이 一般會計와 產特會計 합쳐가지고 6,542億1,300萬원으로 前年度에 比해서 24.2% 增加가 됐는데 이 중에서 一般會計 1,253億2,000萬원 중에서 事業費가 1,090億원입니다.

이 중에서 勤勞者의 福祉事業으로 책정된 것이 130億원으로 全事業體의 11.9%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勤勞基準事業에 책정된 것이 89年度에 168億3,600萬원 來年度에는 135億500萬원으로 오히려 19.8%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職業安定事業을 보면 中小企業 및 外國人投資業體등의 休廢業 및 아까도 長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石炭合理化政策으로 늘어나는 失業者들에 대한 雇傭增進問題라든가 여러 가지 對策에 필요한 돈이 상당히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89年度에 85億2,600萬원 來년에는 80億9,000萬원 約 0.8% 증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까 여러 委員들께서 지적하셨지만 勞政事業에 필요한 豫算이 今年에는 27億6,200萬원인데 來年度 豫算에는 81億2,900萬원으로 194.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勞政事業에 필요한... 물론 돈이 많이 나간데 대해서 제가 可타조타 하는 얘기가 아니고 勤勞者들에 대한 勞使紛糾豫防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豫算이다 우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勤勞者共産團海外研修라든가 여러 委員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勞使教育本部라든가 國民賃金委員會運營이라든가 이러한 주로 勞使紛糾의 예방을 위한 그러한 事業에 돈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勞動運動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勞動運動을 體制顛覆이라든가 左傾勢力으로 매도를 해서 또 매도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위 理念教育을 政府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政府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결과는 勞動組合의 民主적이고 自律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 豫算으로 볼 적에... 소위 豫算이라는 것은 하나의 政策을 숫자로 나열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政府는 勞使紛糾의 경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勤勞者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合法的인

절차에 의한 勞動運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不法적이고 대개 폭력 혹은 방화등을 수반하는 그러한 극렬한 不法勞動行爲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不法적이고 극렬한 紛糾豫防을 위한 事業費는 충분히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건전한 勞動運動을 제약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合法的인 절차에 의한 정당한 勤勞者들의 勞動行爲에 대해서 政府는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不法적이고 특히 폭력을 수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요 차선의 방법은 公權力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문제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長官의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 豫算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시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豫算이 잘못 쓰여졌을 때에는 제가 말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共産團研修教育이 이것이 꼭 共産團 나라에만 研修를 보내야 됩니까? 예를 들면 資本主義가 발달된 英國이라든지 福祉施設이 잘 되어 있는 西歐라든지 美國 이런 데 나라에는 보내면 안 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과거에도 여러가지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勤勞者들을 海外研修를 시킨 바 있는데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政府의 욕심으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보내서 外國을 보고 오게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대개 東南亞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고 이번에 共産團으로 정한 것은 오랫동안 共産團이 폐쇄적이어서 전혀 여행이 안되었었는데 共産主義體制를 모르는 그것이 自生的이 되었건 혹은 오염이 되었건 간에 共産主義를 아직도 至上天國인 양 생각하는 일부의 극히 소수일지 모르지만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데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共産團研修를 한번 지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조금전에 몇 委員님께서 꼭 共産圈 間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문제를 바로 研修를 해야 할 對象者들인 勤勞者들의 總聯盟인 勞總하고 협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이 재셨는데 사실 이번 中共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勞總하고 協議해서 결정했습니다만 그 보다는 더 이번에 第1陣을 보내보고 實效性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韓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선지를 바꾸어 보는 문제를 勞總側과 협의해서 다시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선발기준같은 것도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勞總이 얘기한 것은 가능한 대로 大企業을 배제하고 中小企業의 勞組幹部들 또 비교적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勞組員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도록 勞動部가 누구를 보내라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에 이것이 觀光旅行하는 것이 아니다 또 慰勞出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특별히 명시를 하도록 첨언을 해서 선발기준을 협의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니까 勞使紛糾를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라 그런 얘기지요?

○勞動部長官 崔永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많이 줄 우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職場單位로 보면 組合長들이 중심이 되자요. 영향력이 많다 보니까...

○韓光玉委員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한 것때문에 勤勞者間에 또는 勞組幹部들 사이에 違和感이 조성이 된다는가 또 不公正한 선발기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목적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委員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國民賃金委員會 이것이 調整委員會 福祉委員會 安定委員會 편리한 대로 이름이 몇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것이 꼭 이런 委員會가 있어야 됩니까? 單刀直入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요. 여러 委員들께서 問題

點은 지적했지만 아주 구차하게 눈가림 하는... 아주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政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 자리 숫자 賃金「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機構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아직 명칭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下半年經濟運用計劃이 확정이 되어서 발표할 당시에 國民賃金調整委員會라고 가칭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거기에서 賃金「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賃金調整委員會는 勞·使·公·政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시켜 왔었는데 주지하다시피 勞總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勞總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賃金「가이드라인」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勤勞者들의 복지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름부터가 마치 賃金「가이드라인」만 하는 것 같지 않느냐 해서 명칭도 바꾸자 調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賃金調整委員會가 그 다음에 賃金福祉委員會로 변했다가 지금 勞使安定委員會로 거의 결정이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런 진통을 겪어가면서 同機構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適正賃金を 安定을 해서 勞使協議에 참고로 하고 또 勤勞者들의 福利增進을 위해서 副總理의 諮問機構로서 발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韓光玉委員 괜찮다는 정도가지고 돈을 1億 얼마씩이나 낼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機構라야 하는 것이지... 이런 기구는 豫決小委員會에서도 걸리지겠지만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이 本委員의 견해이고 그 다음에 여러 委員들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거듭 말씀을 長官께서 하시고 저는 듣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가서 또 묻는 것입니다.

아까 答辯中에서도 勞總이라든가 經總 勞總에서 勤勞者教育을 시키고 經總에서 使用者教育을 시킨다 따로 따로 하니까 教育의 問題點이 있다 勞使 같이 공동의 자리를 마

런해서 教育을 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本委員이 알기로는 하여간 어떤 형태든지간에 우리 勞動部에서 관장하고 있는 또는 관련되어 있는 勞使教育機關이 勞總 經總外에 産業訓練協會라는 것이 또 있지요? 거기에서 못합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職業訓練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産業訓練協會에서는 지금 현재 管理監督者訓練을 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면 勞動研修院에서는 그런 분들 교육시킨다 그랬는데...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것은 저희 勞動部職員들을 상대로 하는 職業教育입니다.

産業訓練協會는 各 企業體에서 組長 班長으로 있는 일선 監督者하고 課長 部長으로 되어 있는 管理者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韓光玉委員** 그다음 勞動研究院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教育機關이 벌써 5個 이상 되는데 이 教育機關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機關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機關을 두고 뭇하러 勞使教育本部를 만듭니까? 定款에 보니까 財團法人으로 해서 70萬원을 出捐한 모양인데 여기에 12億 얼마씩이나 말이죠.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長官 설명으로는... 機構의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質疑한 全 委員은 거의 다 반대입니다.

지금 5個 教育機關이 있는데 그 機關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통합하기 어려우면 그 機關을 충분히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뭇하러 새로운 機構를 만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教育을 시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勤勞者와 使用者間的 教育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갈래입니다. 勞總에서 하는 것하고 經總에서 하는 것 그것은 그 나름대로 성격이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살리되 다만 勞使 함께 教育을 시키자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國民의 稅金을 가지고 하는 豫算인데 國會議員이 이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

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勞使紛糾를 근본적으로 아까 예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教育을 시켜야 된다 그 教育은 뭐냐 理念教育이 됐든 政府方案대로 소위 右傾의인 사고를... 뭐 左傾이야 바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政府가 의도하는 대로 勤勞者를 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意識轉換機構 비슷한 政府의 의도대로 勞組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教育機關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순수하게 勤勞者들이라든가 使用主들을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教育機關이 없으면 몰라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새로이 爲人設官式的 기구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長官 의지대로 된 것인지 政府部處의 다른 의도에서 長官이 할 수 없이 받아 가지고 계획에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딱하긴 딱한데 이런 것만 들면 안돼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勞使團體에서 실시하는 教育은 각자의 對應論理에 편중하고 있어서 中立的이고 公正한 勞使教育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經總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勞總에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는 있지만 勞使가 다 함께 참여해 가지고 한방에서 함께 땡굴고 며칠동안 같이 教育을 시켜보자 그러면 지금같은 그렇게 아주 첨예한 勞使對立 극심한 勞使對立事態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으로 勞·使·政 이것이 政府에서만 出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使用者側을 대표하는 經總에서도 出捐을 하고 勞總에서도 出捐을 해서...

○**韓光玉委員** 돈을 언제 出捐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저희들이 이것만 확정 되면 전부다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몫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理事도 勞·使·政이 함께 참여하는 理事會를 구성하고 조금 전에 本部의 會長도 전부 勞總에도 가서 의견 물어보고 듣고 다니면서 의견 다 물어 보았습니다. 좀처럼 人事하기 어렵습니다. 다 좋다하는 사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力點事業으로 하려고 합니다.

韓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에 너무 중점을 두어 가지고 勤勞者를 탄압하고 政府가 생각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면 教育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韓光玉委員 절대로 안한다는 말은 절대로 한다는 말과 또 통하니까 長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勞使關係의 가장 정확한 教育이란 使用主와 勤勞者 간에 원만한 對話와 설득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教育이 가장 實效性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뒹굴고 해야지 갑자기 다른 데 와서 뒹굴고 할 게 무엇이 있어요? 같은 會社內에서 使用主하고 勤勞者하고 뒹굴지 뭐 그렇게 멀리 나와서 뒹굴어요?

(웃음 소리)

그것 안되는 거예요. 이런 豫算은 오히려 勤勞者들의 실제적인 福祉를 위해서 轉用해야 된다는 것이 本委員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小委員會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로서는 이 이상 문제 제기 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勞使紛糾豫防問題에 대해서도 豫算이 5,000萬원에서 8,700萬원으로 3,700萬원 增加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勞使紛糾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전망한 豫算입니까?

○勞働部長官 崔永結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우선 豫算單價도 많이 올랐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뛰 어다녀야지요. 韓委員님 지적하시는 豫算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700萬원으로서 금년보다 3,700萬원이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까지는 勞使指導官 밑에 狀況室이 있습니다마는 狀況室이 전혀 豫算에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수

年度 職制가 改正되면서 調整擔當官이란 課長級이 생기고 그 밑에 職員들을 두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運營費들이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는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관심 있던 것인데 勤勞者들의 賃貸아파트 1,000世帯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勞動委員들뿐 만 아니라 저도 일선에 나서서 1,000世帯를 더 늘려 놓았는데 勤勞靑少年賃貸아파트建立에 대해서 그 推進現況을 담당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勞働部婦女指導官 金松子 89年度 未婚母勤勞者賃貸아파트는 物量이 2,000世帯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000세대였지만 좋은 事業이라고 委員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1,000世帯分이 추가돼서 2,000世帯가 됐습니다.

저희 勞動部로서는 사실상 이것이 좋은 事業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豫算으로 말씀드리면 110億 정도가 되는데 금년 내로 全額을 집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우선 弘報「팝플렛」을 한 3萬部 만들었습니다. 좀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企業主들한테 많이 돌렸고 또 4種의 신문 前面下段에 廣告하고 또 事業主 會議때마다 열심히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實績과 年末까지 豫상을 보면 1,800世帯는 建立이 가능하겠습니까마는 200世帯는 미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81년부터 해온 事業이기 때문에 우선 需要가 없고 또 中小企業에 주기 때문에 敷地確保 능력이 미흡한 사유 등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200世帯分이라고 하면 110億 정도가 되는데 이만한 豫算을 政府끼리 확보하려면 엄청난 힘이 드는데 이 事業이 不振되었다고 해서 國庫에 반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事業하고 유사한 事業인 託兒所事業에 쓰려고 합니다.

우선 託兒所 事業이나 아파트事業이 豫算科目이 같습니다. 그리고 200世帯라면 女性 勤勞者 한 1,000名이 受惠者가 되는데 이것으로 託兒所를 지을 때도 1,000名 조금 못되지만 女性勤勞者의 아기들 한 1,000名이 혜택을 받고 또 女性 勤勞者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목적이 유사한 託兒所 事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建立地域은 女性勤勞者가 많은 地域으로는 工業團地도 되겠고 農工團地도 되겠고 또 零細民 地域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建立을 한다면 금년에 全州 光州에 짓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豫算補助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託兒所를 建立할 때에 建立主體가 땅을 내야 되는데 남은 두 달 期間內에 110億의 豫算이 全額 집행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를 지으면 經濟企劃院에서 더 이상의 보조가 없어도 되지만 託兒所를 建立하면 이것은 運營費가 조금 나갑니다. 이 運營費는 작년에 委員님들께서 특별히 女性勤勞者가 託兒料를 덜 부담하도록 政府豫算에서 한 5,000萬원 정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런 運營費가 부수되기 때문에 經濟企劃院하고 차후로 조금 절충할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女性問題를 하다가 보면 性的 장벽이 엄청나게 깊다는 것을 느낍니다. 女性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오든 아니면 조금 많이 배웠기 때문에 自我實現을 위해서 직장에 나오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기가 돌볼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悲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國家豫算으로 도와 주지 않으면 女性들이 함께 살자 하고 아무리 民主主義 원칙을 부르짖어도 실제로 이루어지 않는 사항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建立主體가 두 달 내에 빨리 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經濟企劃院이라든가 이런 部處間의 協調事項에 대해서는 國會次元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다면 저희들이 未婚女性 住居施設을 위해서는 사실 企業主에게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계속해 온 事業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필요한 事業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실 職業女性이 늘어나는데 企業體가 託兒所를 지어줘야 합

니다. 그런데도 아직 企業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쓰기 때문에 企業體가 未婚女性 아파트 지어주는 만큼의 豫算이라도 託兒所 經費를 보조해 주려고 豫算에 올렸습니다만 企劃院側에서 削減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女性이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이것은 小委에서 託兒所 關係豫算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職業指導 및 就業情報 提供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9年度에 2億1,800萬원이던 것이 來年度 역시 2億1,800萬원으로 전혀 增額이 없는데 經濟企劃院의 내년 雇傭展望에 의하면 失業者가 58萬3,000名으로 올해 예상되는 52萬8,000名보다 5萬5,000名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雇傭增大라고 하는 것은 勞動部의 중요한 業務중의 하나인데 勞動部의 豫算은 전혀 여기에 걸맞지 않는 豫算編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失業率이 2.8%로서 前年度 2.5%에 비해서 0.3%가 높아지고 있고 또 中小企業 및 海外投資業體의 休廢業이 계속 늘어나고 아까 長官께서 말씀하셨지만 石炭合理化政策으로 인해서 많은 失職者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럴 전망인데 勞動部로서는 여기에 대한 對策이 전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職業安定局長 孫元植 韓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政府에서는 來年度에 失業者數가 금년보다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政府에서는 公共事業의 投資를 확충해서 그에 소요되는 人力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失業者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盆唐 一山 地域에 많은 建設人力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經濟企劃院에 豫算 요구한 것은 就業情報를 위한 여러가지 많은 事業을 함으로써 摩擦的 失業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政府財政

형편상 削減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專門人力就業情報센터를 지금까지 서울 光州 釜山에 設置했고 금년에 仁川과 大邱에 設置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大卒者를 위한 就業斡旋機構인데 내년에는 한 군데만을 設置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위해서 今年度 現水準의 豫算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五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 產災保險運營에 관해서 今年度에는 4,140億에서 來年度는 5,289億으로 豫算이 약 27.7%가 증가했는데 福祉事業 분야에서 보면 今年度에 109億7,600萬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88億7,400萬원으로 약 21億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그것은 87年度에 착공한 長省病院의 増改築이 89年 完工으로 17億3,000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光州 再活作業所의 경우에 금년에 土地買入을 위해서 費用이 많이 책정되었다가 土地買入분이 빠지고 建築費만 計上되었습니다. 그래서 外形적으로는 감소됐습니다만 昌原病院의 増築을 위한 設計費用등으로 일단 5億이 計上되었습니다. 그래서 明年에는 보다 많은 投資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韓光五委員 그 다음에 豫算概要 26페이지에 보면 再活作業所 建立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89年度에 25億1,700萬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11億5,700萬원으로 54%가 감소되었습니다. 建立計劃을 보니까 光州市 河南工團內이고 규모도 2個 作業班에 50名 收容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월에 半月再活作業所의 實習生들의 籠城事件을 아시지요? 產災患者들이 低賃金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가지 대우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도 가보았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88年度末 身體障礙者가 27萬1,547名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再活作業所에 入所한 人員은 6,300名밖에 안돼서 0.02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收容能力이 부족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참으로 勤勞現場에서 일하다가 不具者가 된 것도 서러운데 이 사람들이 울데 갈데 없어

가지고 人間待遇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자조하는 말로 자기들을 產業廢棄物로 처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勞使教育本部같은 데는 12億 이상 들여서 새로 불필요하게 혹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때는 豫算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우선 再活作業所의 建立 豫算이 줄어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今年度에 25億1,700萬원은 土地 購入費하고 設計費입니다. 그리고 明年度에 建築費로서 11億5,700萬원이 일단 計上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土地를 사는 데 소요되는 豫算이었기 때문에 일단 감소됐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지금 11億5,700萬원 가지고 建築工事의 70%를 明年度에는 완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再活作業所의 사람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적은 사람들밖에 收容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再活作業所는 현재 產災의 重障害者들을 入所對象으로 해서 그러니까 產災患者로서 治療가 종결돼서 다 固定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社會에 復歸시키기 위해서 지금 再活職業訓練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사람들을 保護雇傭이라고 해서 계속 雇傭을 하려고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보다는 그 좋은 施設을 社會復歸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方針下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半月再活作業所에서는 印刷와 縫製訓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月1日날 開所합니다만 縫製를 研修 받은 사람들 5명이 나와서 스스로 自立해서 지금 새로운 工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障害者들이 再活自立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앞으로 계속 적극 추진하도록 產特會計에서 적극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光五委員 계속 다른 豫算보다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勞動部 豫算이 쓰여지는

것은 아무 누구도 異議를 提起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再活作業所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대우는 社會福祉의인 側面에서 상당히 확대시켜 줘야 됩니다.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支援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韓光五委員** 그 다음에 保險管理 豫算을 여러 委員들께서 總括的으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今年度에는 146億7,000萬원이던 것이 來年에는 210億정도로 約 43.2%가 增額되었구만요. 그 내용을 보니까 產災業務 電算室運營이 約 11億 本部運營이 22億 地方勞動管理運營이 174億 產災審査가 1億5,000... 대부분 保險管理豫算이 增額된 것이 勞動部 本部和 地方勞動官署運營費는 94%가 增額 策定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 委員들이 지적을 했고 또 法上으로 產業災害補償法이 改正되어서 소위 保險事業 事務執行에 所要되는 비용을 一般會計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來年에는 78億9,600萬원을 算定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거의 人件費라든가... 실지로 一般 產災事業과 관련이 없는 部門 經費는 一般會計 100%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쯤 100% 다 이쪽으로 充當하게 되는지 전망을 해 보세요. 사실은 法을 고칠 수도 있어요. 원래 100%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勞動保險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韓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保險管理豫算이 사실 急增했습니다. 그것은 產特會計에서 地方廳舍 新築費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產特會計所管 廳舍 新·增築費가 60億1,600萬원이 計上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勞動部에서는 당초 廳舍 新築費를 一般會計로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쪽으로 產特會計가 計上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經濟企劃院의 主張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사무실의 確保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廳舍增築은 業務費라고도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만 保險資產의 取得이라는 業務費的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廳舍資產이 取得되면 資產의 가치는 계속 上昇해서 產災保險業務의 安定的인

運營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產特會計資金에 의해서 廳舍確保가 처음 시작된 것은 勞動部의 地方事務所가 당초 勞動廳의 產災地方事務所로 되어 있던 데에... 勞動部 地方事務所가 거기서 發足했기 때문에 지금 그와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가끔 產災保險運營體制를 公社體制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運營體制轉換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產災保險資金에 의해서 廳舍를 확보하는 일부 필요하다는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90年度 豫算案에 廳舍新築豫算이 사실 저희도 다소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地方事務所의 廳舍형편을 고려하시고 이와같은 점을 계속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韓光五委員** 제 質問의 핵심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保險管理에 있어서 실제로 產災事業과 관련이 없는 職員들의 人件費라든가 福祉受惠 등으로 편성된 豫算은 一般會計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同意하시지요?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예.

○**韓光五委員** 또 法上으로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來年度の 豫算이 787億9,600萬원만 策定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00%를 부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나 그것을 答辯해 달라니까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報告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來年度 豫算으로서 產特에서 여태까지 나가던 것을 一般會計로 요구한 것이 전부 93億9,300萬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人件費 즉 產災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職員들 953名에 대한 人件費 77億7,300萬원 그 다음에 基準經費로서 本部가 6,300萬원 地方이 2億8,600萬원 해서 計 3億4,900萬원 官署當經費로서 本部가 6,100萬원 地方이 12億1,000萬원 計 12億7,100萬원 이렇게 해서 統計가 93億9,300萬원이 필요하다고 90年豫算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經濟企劃院은 한꺼번에 다 計上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人件費는 全體의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즉 77億7,300萬원은 이번에 전부 一般會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基準經費中에서 일단 地方것은 이번에 計上하지 말고 다음 年度로 미루고 本部經費 6,300萬원을 計上을 했습니다. 官署當經費에 있어서도 本部 6,100萬원을 計上했고 地方 12億1,000萬원은 다음 年度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未反映된 것은 14億9,600萬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91年度에는 다 反映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經濟企劃院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調整을 받았구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產災豫防에 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90年度 產特會計 執行計劃을 보면 產災補償에 86.7% 產災豫防에 2.51% 福祉事業에 0.16% 保險管理에 4.0% 豫備費에 5.1% 이렇게 되었는데 豫防費가 2.5%에요. 그런데 1987년부터 產特會計에서 豫防費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87年度에는 25億으로 產特會計의 0.8% 88년은 31億으로 0.8% 89年度에는 121億으로 2.9% 來年度에는 133億으로 줄어 가지고 2.5%로 어쨌든간에 增加는 조금씩 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勞動政策에 있어서 항상 사고가 나야 수습하려고 하는... 거기에 모든 勞動政策이 投入되고 있는 것 같아요. 產災豫防보다는 產災後에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制度的으로 잘못된 것같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가 지난번 監査때부터 主張한 것인데 豫防基金같은 것을 형성해 가지고 產災豫防事業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名の 患者가 나와서 드는 費用하고 10名の 患者가 미리 나지 않도록 豫防事業에 쓰는 돈 비중을 따지면 10對1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사람 하나가 병신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豫算을 투입하는 그런 식의 產災豫防政策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質問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이상으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統一民主黨所屬 李仁濟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여러 委員들이 많은 質問을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이번 豫算案을 總體的으로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勞動基準事業豫算이 今年보다도 19.8% 감소한 반면에 勞政事業豫算은 今年보다도 무려 194% 정도가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勞動基準事業 豫算이 이렇게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勞動部 勞動基準局長 金龍昭 勞動基準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勞動基準事業의 89年度 豫算은 昨年度 여러 委員님들께서 勞動者賃貸아파트를 2,000世帶로 해서 110億을 했던 것이 來年度에는 1,000世帶 해 가지고 60億 여기서 50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總體的으로 今年度 豫算에 비해서 來年豫算이 33億이 줄었다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20億 이상의 事業費가 는 것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勞動者 靑少年賃貸아파트는 건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勞動部 勞動基準局長 金龍昭 아닙니다.

來年度에는 1,000世帶로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昨년에 2,000世帶를 建立했는데 올해는 1,000世帶만 建立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勞動部 勞動基準局長 金龍昭 每年 1,000世帶를 建立해 왔습니다. 그런데 今年에는 2,000世帶가 豫算에 計上되어 있습니다마는 來年 까지 1,800世帶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來年度에는 前年度와 같이 1,000世帶로 하기로 했습니다. 2,000世帶가 實質的으로 소화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2,000世帶를 지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자가 적었어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아니구요. 昨年度에 委員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원래의 豫算案일 때는 1,000世帶만 짓기로 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目的事業이니까 1,000世帶를 더해라 해서 增額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運營하다보니까 中小企業體에서 垆地를 자기들이 마련하면 우리가 돈을 대주는데 垆地를 마

런해 가지고 짓겠다는 쪽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年末까지 해서 1,800世帯... 그것도 조금 무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來年度만 1,000世帯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1,000世帯를 줄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垆地는 지금까지 中小企業體나 地方自治團體에서 제공하고 建築費를 勞動部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저희들이 50% 보조하고 50%는 自體負擔입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은 規定이 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특별한 規定은 없습니다. 補助金管理規定에 國庫 50% 이상 補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規定을 고쳐서라도 勤勞靑少年貨貸아파트 建立事業같은 것은 줄어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勤勞者의 福祉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勞動部長官 崔永結 그래서 사실 建築費 100% 중에서 50%는 政府가 補助를 해주고 나머지는 마련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住宅基金에서 長期低利로 融資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특히 都市地域에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李仁濟委員 땅도 勞動部에서 사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사주지 말라는 특별한 法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豫算이 그렇게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아요. 그 다음에 勞政事業分野豫算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增加한 특별한 이유가 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睿 勞政局長입니다.

李仁濟委員님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勞政事業 豫算은 89年度에 비해서 約 53億이 增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194%가 增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勞總研修院 新築費 補助에 30億 勞使教育本部 運營豫算에 12億 勞總의 地域勤勞者研修所 運營費 5億 勞動研究院 增額이 2億 그래서 約 50億이 이러한

事業으로 增額 策定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數値를 보이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하여튼 勤勞基準事業은 直接的으로 勤勞者의 權利를 보호하거나 또 勤勞者들의 福祉를 增進하는 분야의 行政이고 勞政事業은 勞使關係法規의 效率性을 確保하기 위한 行政으로서 前者가 규모가 줄어들고 後者가 增加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勞動行政이 發展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本委員은 確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關係局長도 설명을 했지만 勞政事業이 勞總 무슨 사업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몇 十億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따지고보면 근로자의 福祉增進보다는 우선 다급한 勞使紛糾 鎮靜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그래서 本委員은 우선 勞動部 來年度 豫算編成을 보면서 우리 勞動行政이 잘못되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것을 質問하겠습니다.

概要 21페이지에 보면 國際職業訓練센터를 設立하는 豫算을 計上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다급한 사업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職業訓練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 82年10월에 兩國頂上會談에 의해서 國際적으로 兩國間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海外開發公社支援에 8億,000餘萬원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다른 委員들도 같은 소감이겠지. 海外開發公社에 이같은 豫算을 사용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는지? 海外開發公社는 여러가지 自體收入도 있고 우리 勞動部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長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海外開發公社는 완전히 機能調整을 해서 지금 새로이 法改正案을 立法豫告를 해서 가능하면은 이번 定期國會에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海外開發公社가 여러가지 問題點

을 안고 있었고 또 赤字運營要因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機能이 조절이 되어서 立法豫告를 한 것처럼 海外技術協力關係를 전담을 할 경우에 다소 經營이 合理化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것이 投資機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出捐機關으로 바꾸어질 경우는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여전히 勞動部所管으로 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일단은 勞動部所管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알았습니다.

다른 委員님들도 많이 質問하신 것 같은데 韓國勞使教育本部 設立運營에 12億원의 豫算을 計上하고 있습니다.

우선 韓國勞使教育本部가 民法上에 財團法人인 모양이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勞動부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機關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定款을 제가 훑어 보니까 아까 長官께서는 出捐金을 여러 군데에서 낸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에서 내는 것은 겨우 70萬원이고 그 다음에 基本財産을 보면 거의 다 政府가 出捐하는 것 같아요. 廳舍賃借保證金이라든지 또 運營財源을 보면 政府 이외의 者로부터도 出捐金 補助金 支援金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동이 되면은 政府에서 지금 12億원을 보조를 하고 經總이나 勞總에서는 얼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이 報告드리겠습니다.

勞使教育本部는 일단 勞·使·政 3者出捐으로 財團法人을 設立을 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財團法人을 설립하기 위해서 70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財團形成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今年度 運營은 總 5億8,900萬원이 들어갈 것으로 豫定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國庫에서 4億9,300萬원을 지원을 해주고 民間團體가 9,560萬원을 내기로 計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동이 되면은 바로 出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來年度에는 國庫支援이 12億200

萬원으로 豫算을 計上하고 있습니다마는 民間團體支援이 1億5,400萬원으로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者間에 합의된 額數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아까 長官께서도 이것을 法을 만들어 가지고 法定機關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關係機關과 협의해 가지고 우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政府가 주도적으로 民法上의 財團法人을 만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이것은 民法上 法人根據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民法上 法人을 國家가 왜 만들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國家가 직접할 사업인데 國家가 직접하는 것보다 勞·使·政 3者가 같이 뜻을 모아서 出捐機關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各行政機關이 특수한 行政作用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民法上의 法人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 事例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더러 있어요? 이것은 國法秩序를 문란시키는 행위예요. 機關을 함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근거를 묻는 것 아닙니까? 民法上의 財團法人이야 個人들이 國民 一般들이 하는 것이지 國家가 무슨 機關을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요? 法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야지.

이것은 발상 자체가 아주 의심스럽다 말이에요. 그러면 政府가 民法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機關 만들어 가지고 좀 특수한 行政作用은 다 거기다 맡겨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간혹 그런 事例가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간혹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이런 機關이 꼭 필요하다면 特別法을 만들어 가지고 特殊法人으로 하든지 뭘 해야지 지금 局長께서도 이야기했듯이 政府가 해야 될 일을 맡기기 위해서 民法上 규정을 갖다가 그것을 만들어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원칙적으로는 法을 제정해서 公法人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法을 제정하는 데는 時日이 필요하니까 우선 財團法人으로 發足を 하고 法案을 提案을 해서 나중에 公法人으로 만들 計劃입니다. 이런 事例은 지난번 勞動研究院을 설립할 때도 역시 先法人을 만들었다가 후에 公法上的 法人으로 法을 제정해서 변경시킨 事例가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때 勞動研究院도 豫備費 가지고 주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던 말이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豫備費로 막 쓰고 그런 資金이 豫備費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전에도 내가 조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豫備費라는 것은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勞·使·政 3者間에 中立的인 教育機關을 만들어서 勞動部가 해야 될 教育事業을 거기다 맡겨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法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機關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與否에 대한 國會가 審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豫算이 청구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이것은 아주 行政萬能主義라고 할까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도저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이예요.

이것 봐도 그래요.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이 定款을 보면 運營에 勞動部長官 承認을 전부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國家機關이지 어떻게 私的인 財團法人입니까?

이것은 法の 設置根據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잘 檢對를 해보세요. 行政이라는 것이 아무리 급하지마는 法の 근거를 갖고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더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勞總이 獎學事業 支援으로 20 億원을 支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基本的으로 제가 反對하기 때문에 質問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勞動組合이 이런 組合員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이런 事業 장학사업하는 곳이 그런 國家가 支援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東洋圈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물론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좋게 보면 좋은 것인데 나쁘게 보면 政府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런 結果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는 지금 勞動組合이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罷業基金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勞動部가 勞組가 앞으로 이런 장학기금이나 罷業基金 이런 基金造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政策目標을 세우고 있습니까? 局長이 答辯해도 좋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勞組에서 罷業基金을 造成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自律的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문제입니다. 저희 政府로서는...

○**李仁濟委員** 法的인 制約이 없습니까? 組合費 上限線 정하지 않았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組合費는 2% 以內의 上限線이 정해져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 基金造成이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政策目標이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별다른 計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李仁濟委員** 勞總쪽과 상의해서 가지고 어떤 法的인 장애가 있는 것인지 다른 장애가 있는지 한번 살펴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그런 方向으로 노력을 해보시지요.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勤勞監督業務能率化” 해가지고 많은 豫算이 아니고 8,400萬 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문제는 法務研修院에다가 委任教育을 한다고 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法務研修院이라 하면 알다시피 檢事들 教育시키는 곳인데 여기다가 勤勞監督官 데려다 놓으면 결국은 勤勞監督官들의 司法權 行使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教育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長官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勤勞監督官의 本來의 기능은 勤勞基準을 業體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是正시켜서 勤勞者들의 權利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이 司法權을 떼내야 한다는 所信을 本委員은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教育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勤勞基準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방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勤勞監督官은 行政公務員임과 동시에 司法警察官으로서 檢事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勞動部에서도 勞動研修院 自體에서도 教育을 시키고 있고 司法警察官 職務에 대한 어떤 事業主의 滯拂企業主라든지 不當勞動行爲 事業主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 公務員으로서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每年 法務部에 委任教育을 해서 基本的인 司法警察官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양성시키는 데 目的을 두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勤勞監督官 숫자 이렇게 하시렵니까? 일선에 나가보니까 지금보다 3배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人員늘리는데 勤勞基準事業豫算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될텐데 어떻게 확보하는 方案이 없습니까? 전망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근 500名 요청했는데 來年豫算에 반영된 것은 62名인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를 쓰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企劃院長官을 勞動委員會에 한번 불러와야 되겠어요.

다른 委員들께서도 質問하셨을 것인데 29페이지 產特會計에서 地方勞動官署 廳舍増改築費用으로 60億 計上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맞습니다.

60億 計上했습니다.

○李仁濟委員 왜 產特會計가지고 廳舍를 짓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잠깐 報告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아까도 保險局長이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당연히 一般會計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一般會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產特會計로 아직까지 計上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保險局長이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이 地方事務所가 최초는 產災保險事務所로서 出發했었습니다. 그래서 政府가 產特會計에서 廳舍를 짓는 式으로 나오다가 근래에 와서 一般會計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해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一般會計에서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큰 것은 아니고 公認勞務士 實務教育을 위해서 1,000餘萬원 計上되어 있습니다.

教育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公認勞務士들이 實質的으로 勞務士資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勤勞基準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현재 86年度 시험 87年度 合格者입니다. 당시 106名이 합격해서 현재 開業者는 48名 就業者 27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來年度 豫算에 관한 것은 매년 公認勞務士 시험을 칠 것을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2년에 한번씩 해서 금년에 시험을 쳐서 12월에 合格者發表가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이렇게 豫算을 들어서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教育을 시키면 그 資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公認勞務士法에 의해서 行政節次에서 서류를 代行하는 업무밖에 못하게 하고 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현재로서는 書類代行과 상담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辨理士같은 사람들은 特許에 관해 行政節次에서 委任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公認勞務士도 제가 볼 때는 勞動委員會라든지 地方勞動官署에서 行政節次에 委任을 받아서 業務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勞動委員會 監査를 하다보면 그 절차에서 使用者측은 社長이 어디 나오니까? 다 밀의 代理人을

시킨다든지 辯護士를 시키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거의 本人이 안나오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代理制度 만들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公認勞務士 行政節次에 대해서 代理할 수 있도록 委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그것은 長期的인 안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검토해서 꼭 委員들이 法案내기 전에 勞動部에서 빨리빨리 주세요.

그리고 勞動審判所法을 낸다고 하더니 이번 定期國會에 안 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黨政協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勞動委員會法改正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이번 定期國會에 나오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李仁濟委員 한 가지만 더 質問하겠습니다.

豫算案을 보니까 國民賃金委員會... 이름은 아직 확정 안된 모양인데 이것을 勞動研究院 소속으로 해가지고 豫算에 計上되었는데 賃金委員會는 性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勞動研究院의 傘下機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副總理의 자문기구로 출발합니다마는 事務局 기능을 우선 잠정적으로 우리 勞動研究院에서 감당해 주도록 해서 豫算이 이쪽으로 오른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經濟企劃院 豫算에 편성을 하지 그랬어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자문기구를 만들면서 별도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선 勞動研究院이 각종 자료같은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事務局 기능을 거기다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勞動研究院으로 豫算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國民賃金委員會 構成의 필요성을 勞動部에서 먼저 제의했습니까 經濟企劃院에서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함께 상의했습니다.

○李仁濟委員 처음에 먼저 제의한 사람이 있을 게 아니에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李仁濟委員 기억이 없는 것을 보니까 經濟企劃院에서 먼저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經濟企劃院에서 필요성을 먼저 제외하고 자기들 자문기관으로 해 가지고 우선 事務局 기능만 勞動研究院에 맡기다 보니까 勞動部 豫算으로 편성이 됐다면 사실 그쪽에 가서 따져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委員會에서 무엇을 決定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李仁濟委員 의견만 내주는 것이네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研究院에다가 賃金の 구조라든지 賃金에 관한 적절한 政策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 관련 當事者들하고 전부 公聽會도 하고 해 가지고 의견을 내달라 하는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勞使 兩當事者들한테 홍보한다든지 言論에 홍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輿論을 조성해서 行政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方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下半期 經濟運用計劃에서 政府는 일단 副總理의 자문기구로서 말씀드린 賃金調整委員會를 발족시키기로 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단순한 자문기관인데 공연히 나와 가지고 특히 勞使團體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무슨 實效性이 있으면 좋은데 長官님 견해는 實效性이 있을 것 같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저는 實效性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李仁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 質疑하시기 전에 委員님들에게 유의하실 점을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李仁濟委員 質疑·答辯 가운데 勞動委員會法改正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國會 勞動委員會에서는 野 3黨間에 合意된 勞動委員會法改正法律案이 繫留중에 있습니다. 與黨側에서 反對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與野間에 合意해서 滿場一致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繫留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전체를 잘고 政府側에서 同 法的

改正案을 낸다고 하면 이것 역시 與野間에 協商을 해서 가능하면 滿場一致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委員長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法の 改正上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勞動委員會의 명칭을 國會勞動委員會하고 작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 점이 있고 그리고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勞動委員會가 엄격히 自主性에 의해서 자기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構造上 다듬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가 현재 中央勞動委員長의 職級이 1級입니다. 그러면 政府에서도 그렇고 與黨도 그렇고 野黨도 그렇고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은 長官級으로 해야 權威가 서고 모든 勞使紛糾에 있어서 調停機能이라든가 判定機能을 발휘할 때 權威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요약해서 유의할 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豫算案에 내놓으신 것을 보면 1級으로 이대로 되고 이렇게 되면 만일에 이 豫算은 90年度 來年에 執行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法の 改正에 따라서 職級이 上向調整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 豫算가지고 執行이 가능하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問題點만 委員長으로서 제기해 드리고 여러 委員님들께서 細部的으로 檢討해서 豫算 다루시는 데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 드려 둡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所屬 李康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시간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물론 長官님도 그러시지만 마지막 質疑가 아니고 또 한 委員님도 남으셨는데 많은 公務員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눈총을 받을 것 같고 더군다나 國會事務處 職員도 時間外手當도 못받고 이런 근로를 종종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또 사기저하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먼 데에 있는 여러 가지 國家問題들 걱정하지만 實際的으로 勞動部 자체내에 있는 職員問題나 또 우리가 이렇게 國家일을 立法機關으로서 하는 事務處 職員에 대한 처우문제도 우리가 大幅的으로 한번 論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늦은 시간에 이런 質問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척 마음이 썩썩한 기분이 들지만 이런 문제 長官님께서나 우리 國會勞動委員會 委員長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될 수 있는 전망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역시 勞動部가 企業과 勤勞者 사이에서 國家에 대한 行政을 도맡아 하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實際的으로 오해를 받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豫算을 審議하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오해를 받게 됐고 豫算問題에까지도 어떤 業務를 추진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많은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勞動行政은 아직도 뭔가 변화를 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해나 來年の 걱정때문에 아까 많은 지적도 나왔지만 우리 나라의 실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勞動에 대한 政策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하고 활발히 전개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豫算에 대한 문제의 限界性 그것에 따라서 우리 人的 자원에 대한 문제의 限界性 때문에 勞動行政을 원활히 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폐단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 나라의 豫算이 풍족하지 못해가지고 各 部處가 豫算을 따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實際的으로 國家觀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데도 豫算이 수반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長官님께서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政治的 大先輩이시고 行政府 勞動問題에 아주 지난 해나 今年에 勞使紛糾가 多發的으로 또 大型化돼 가지고 生産蹉跌이 엄청나게 國家 經濟問題들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문제가 따르고 또 產業安全問題 職業病問題 하여간 諸般 問題點이 오늘날의 우리 國力에 어려움을 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勞動問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수 없이 강조됐는데 지금 이 豫算을 가지고 委員님의 신랄한 質問이 있었습니다마는 長官님께서 특별히 來年度 豫算을 全般的으로 놓고 볼 적에 그 동안

에 또 앞으로 우리 勞動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의 豫算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經濟企劃院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인데 못받아서 이런 問題點이 있다 이런 아쉬움이나 實際的으로 勞動行政을 다루는 데 꼭 반영이 돼야 할 문제가 안된 문제 이런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代表的으로 꼭 필요한 것인데 현재 안되고 있다 이런 質問을 하는 것은 長官님께서 각 항목을 다른 委員님께서 質問드렸을 때에도 와 달라는 말씀을 連續的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항목에 偏向的인 뜻에서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全體豫算에서 어느 것이 經濟企劃院에서 받아야 되고 이것이 勞動行政에 필요한데 반영이 안됐다 하는 것이 代表的으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長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勞動委員會는 물론이지만 豫算決算委員會나 本會議 때라도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에서 여러 委員님들이 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지 않을까 해서 먼저 本委員이 듣고 싶은 바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勞動部の 욕심으로 해서야 많은 豫算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政府 全體豫算의 財源마련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提案說明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提案을 한 이것을 原案대로 통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희망이고 지금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增額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增額을 시켜 주면 좋으나 하는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委員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失業者 雇傭促進訓練費가 사실 너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來年度의 雇傭展望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궁극으로 보면 빠른 시일안에 雇傭保險制度가 마련이 돼서 우리 勤勞者들이 失職을 당했어도 生計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러한 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政府로서도 92年度에는 雇傭保險制度를 도입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전초적인 단계에서 失業者

雇傭促進訓練費를 사실은 이번엔 50億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最小限度 30億원은 增額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희망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職業訓練院의 장비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또 產業이 하루같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획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老朽裝備 交替하는데 우선 급한 것이라도 매워야 하는데 代替費가 아주 조금밖에 計上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더 增額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몇 委員께서 지적하신 技能獎勵法만들이 놓고 基金造成이라 해놓고 基金이 금년에 하나도 조성이 안되어서 사실은 法違反이 된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死文化된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서 무척 괴롭습니다.

그래서 來後年부턴 基金을 93년까지 200億으로 조정해서 어떻게 조성해 보려고 하는 苦肉之策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基金에 조금이라도 더 出捐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잘 알겠습니다. 長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 委員會 委員님들이 問題點으로 지적도 하였고 또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같이 공동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本委員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90年度 歲入歲出豫算案 各目明細書에 나와 있습니다. 日僱雜給職에 대한 豫算承繼가 6,91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비단 勞動部側만이 아니겠지요. 各部處 共히 전부 동일한 것인데 과연 6,910원으로 어떤 日僱雜給職을 활용해서 政府가 어떤 뭘 한다는 豫算을 짜고 받아 가지고 가능할지 더군다나 우리가 근로자라는 階層들을 가장 行政的으로나 國家的으로 모든 것을 향상시키고 적어도 中流級生活을 할 수 있는 데로 끌어주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勞動部로서는 물론 經濟企劃院과에 문제가 있지만 보다 과감하게 가장 先導的인 역할로 앞장서서 改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전상 이런 방법이 여러가지 原簿整理서부터 하여튼 이삿짐 나르는 것까지 다 여기 있는데

6,910원 單位인데 變則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터놓고 얘기해서 이 單價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國家에서 監督院 監査나 여러가지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우리 國會에서도 國監에서 논란이 되려면 限없이 해야 될 문제인데 變則을 政府 스스로 해야 되는 이 單價를 정해 놓고 이대로 豫算도 來年에 반영시키기로 짜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상당한 문제점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勞動行政을 다루는 長官께서는 改善할 용의나 또 政府側으로서는 改善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일정별로 보거나 그러면 많이 필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勞動部의 一般雇傭職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이런 所管이 아닙니까?

本委員이 序頭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國會事務處 職員들도 土曜日도 그냥 여기서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여섯 시 이후에도 다 여기 계신 公務員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섯 때가 되어도 退勤도 못하시는 이런 하나의 國家觀이 없으면 못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근로시간도 아주 여러가지지만 우리 앞에 있는 것부터 진작을 시켜야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行政公務員에게 생기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그런 생각에서 長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6,910원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統計 集配員 原簿整理員 이삿짐 나르는 사람 뭐 다 6,910원이에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經濟企劃院하고 總務處에서 計算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容喙하기가 어렵군요.

다소 각종 項目을 보면 현실화되지 않은 項目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李康熙委員 이 문제는 長官께서 이것도 분명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勞動問題의 차원입니다.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政府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政府로서 정말로 근로자의 權益向上을 한다는 또 더군다나 勞動行政으로서는

對外的으로 좀 수치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國家豫算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國家가 雇傭하는 또 雜給職으로 써야 될 勤勞階層은 분명한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색하게 이런 單價가 策定되어 가지고 一般公務員한테 賃金單價 높여라 勤勞者의 무슨 處遇改善하라는 것은 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금 豫算反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면서 과감하게 우리 政府側이나 우리 國會에서도 앞으로 改善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지방에서 이런 工事單價費 때문에 건설에 종사하는 雜給職도 8,600원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로 세번씩 政府工事が 流札되는 경우가 허다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委員會에는 所屬感이 없기 때문에 本會議나 어떤 對政府質問의 기회를 통해서 할 생각이지만 우선 勞動行政次元에서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 政府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를 長官께 부탁 겸견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項이 1500이고 590페이지서부터 쪽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手當이다 日備雜給 國內旅費 需用費 手數料 이런 것이 89年度에는 없던 것이 '90年度에 전부 다 새롭게 豫算項目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없던 사업 안하던 사업이 計上되었습니까? 594페이지 項 1500에서부터 細部項 244에 쪽 나와 있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그것이 新設事務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어느 新設事務所입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來年度에 仁川事務所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勤勞事務所를 增設한다 이것입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豫算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勞動部事務所를 더 增設하는 데 따른 例年에 없던 費用이 計上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委員께서도 지적하셨지만 產特會

計에서 60億을 廳舍... 물론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꼭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근로자에 대한 賃金上昇問題라든가 여러가지 企業主의 압박문제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까 長官께서 말씀하신 雇傭保險問題라든가 여러가지 하여튼 法的制度로 해서 企業主와 근로자가 협력해서 새로운 福祉國家目標을 달성해야 될 문제를 지금 조금 느끼면서도 企業主의 반발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長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인데 지금 産災保險檢討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企業主가 내는 것인데 이것도 轉換해 가지고 廳舍를 新築한다 또 지금 약 1,000億이상 基金이 死藏이라면 조금 語弊가 있을지 몰라도 지난 해에 産災保險料가 移越이 되고 여러가지 목적은 다 좋지만 결국 企業主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教育費도 訓練促進費로 해서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企業主보고 결국 勞動部 國家에 대한 廳舍를 지어 내랄 수 없으니까 變則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것으로밖에 못하는 것으로 저는 斷定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保險料가 지금 어떤 産災患者나 또는 심지어 産災死亡者 家族에게까지 補償되는 것은 무척 法이 까다롭고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3代에 들어오면서부터 自動車保險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民間次元에 대한 保險運營制度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빼면 지금 아마 勞動部가 1年 豫算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縮小정도가 아니고 運營의 문제 存廢與否까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産災保險인데 이렇게 轉換되고 이런 식으로 活用이 되어도 觀望을까 하는... 아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一般企業인들이 묵묵부답으로 割當額을 내놓고 있지 이런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히 長官께

서 감안하셔 가지고 실제 목적하는 産災保險料는 실제 현장에서 産災를 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 아까 豫防問題가 나왔지만 美國이나 프랑스 英國은 5% 내지 7%를 豫防事業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2.54%를 지금 쓰고 있지요? 그렇게 計上이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事故豫防을 전혀 度外視하고 事後責任問題를 아까 다른 委員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1,000億 이상씩 移越을 시키고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廳舍 짓고 그러면서 이런 돈 가지고 지난 해에는 우리가 70%나 60%나를 가지고 무척 논란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따라서 무엇인가 실제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고 정말 職場에 대한 문제점도 이것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豫防할 수 있는 차원에서부터 실제 産災를 당한 데로 補償금이 注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長官께 강조를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李委員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勞動部の 事務所 廳舍의 新築이나 增·改築을 당연히 一般會計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행히 事務所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이 産特에서 一般會計로 轉用이 된다면 모르지만 역시 産特의 資産으로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장에 産業災害者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 주시고 지금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産特에서 廳舍같은 것을 짓는 것은 앞으로 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康熙委員** 많은 是正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勞動委員會에 대한 豫算... 아까 法問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産特辦公費가 있는데 그것이 勞動委員會의 무엇에 支出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勞動委員들 會議費 등 그런 것이지요.

○李康熙委員 어떤 會議費 성격입니까? 소위 13個 地方勞動委員會나 中央委까지 다 포함해서 이 豫算을 쓴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렇다면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中勞委가 한 20萬원 地方勞委가 8萬원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과거에... 勞動委員會 事件分析을 해 보니까 지금 몇 勞事件이 늘었습니까? 來年度와 對比해서 爭議事件이 85年度에 17件에서 2,535件으로 來年度 8月31日까지입니다. 지난 88年度에는 2,256件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判定事件이 85年度에는 무려 694件에서 3,184件으로 기하 급수적인 事件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통 통계가 하루에 서울地勞委같은 경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매일 다섯 件을 判定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돈 8萬원 가지고 어떤 會議를 하고 한 달동안 운영하라는 것은 차라리 없느니만도 못합니다. 이것은 長官께서 무엇인가 다른 豫算에서 轉用해서 적어도 勞動委員會의 운영에 충실을 기해야 앞으로 制定될 法 次官級으로 昇進시키는 것에 대한 효과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小委에서 다루겠지만 좀 과감하게 어떤 방안을 長官께서 提示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國政監査가서도 느끼고 작년에도 느꼈는데 마이크를 전부 다른 데에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裁判所 審判員 어쩌고 職級을 次官級으로 어쩌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判定입니다. 勞動業務의 공정한 判定을 하려면 機動力도 발휘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마이크施設이나 錄音은 다음에 공정한 裁判을 했다는 證據로서도 꼭 채택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시설 자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判定을 하는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高法이나 大法院에 가서 문제가 될 때 어떻게 證據를 提示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뒷받침하려면 각 13個 中勞委까지 映播施設에 대한 것은 꼭 設定해 주어야 되겠다... 제가 통계를 잡으니까 映播施設費가 적어도 한 7,000萬원 더 計上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무

슨 會議費도 적어도 4億정도는 더 들어가야 적절한 會議運營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시간관계상 통계는 종합적으로만 드리니까 과감하게 長官께서 代案을 提示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法 이전에 현재 있는 것에 대한 運用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長官의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원칙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小委員會 때에 한 번 거르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福祉事業機關인데 근로자들이 文化祭 등 여러가지 行事務 하던 것이 작년에 1億9,000萬원 정도였는데 그냥 9,000萬원이 줄어들고 한 1億정도 되는데 演劇祭다 이런 것은 전부 다 文公部로 移管이 되었다 해서 그나마 削減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靑少年勞動者 數字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적어도 產業體에 그 정신함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 필요로 하는 때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인색하게 豫算을 물론 經濟企劃院에서 안주니까 反映自體도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勞動部가 傘下機關에 대한 것을 너무 소외하는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것도 과감하게 반영을 시키시고 아까 勞使教育本部에 대한 얘기를 長官께서 많이 政府의 의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異見提示와 따라서 조금 그것에 모순된 長官의 의견이 아니신가 그래서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委員님들한테 法的인 관계나 금년 9月28日로 勞總 經總 그리고 3부의 次官님들이 의논해서 70億 設立基金을 出資해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순서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고 本委員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李仁濟委員님께서 신랄하게 얘기 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設立動機라든가 定款에 대한 목적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國民을 이끄는 政府이기 때문에 國家主導로 하기 위해서 이끄는 것인데 왜 國家의 의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지 조금 그런 점에서 本委員은 납득이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政府가 해야 될 일을 民間人한테 넘긴다는 그것은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國家가 國民을 적어도 經濟問題의 어려움을 勞·使·政이 공히 이끌어야 되는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順序의 문제가 있다면 그 順序는 무슨 補充對策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機構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長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定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機構나 꼭 제발 通過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용조용하게 하기 때문에 제 意志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李康熙委員** 아니 國家가 의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고 否定的인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本委員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政府라는 입장에서 분명히 國家가 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勞動部長官 崔永喆** 이것은 政府와 勞·使 모두 함께 出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政府가 혼자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마는...

○**李康熙委員** 그러나 法的인 목표는 政府의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教育이라는 것이 아까 많은 委員들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混線的인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教育이라는 것은 勞使問題뿐만이 아니고 平生教育이라 할 정도로 뭐 八旬까지도 배우고 요즘 70老人이 大學을 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經濟問題에 따라서 教育을 시키는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점으로 등장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順序의 문제는 있을망정 조금 필요성은 우리가 同感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長官의 意志를 한번 더 재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教育이라는 것은 어느 기회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國家事業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그동안 6·29宣言 이후에 勞使問題가 多發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해야 될 시급한 問題點으로서 이것을 출범시키려는 政府의 다급한 생각에서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순서가 바뀐 점은 政府에서 보완을 해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도 여러 委員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教育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른 어떤 의미가 특별히 부여될 것이 없으니까 꼭 해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해서 勞動部가 생각하는 것을 적극 지도해주시고 잘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늦고 여러가지 해서 이만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鄭宗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宗澤委員** 연일 國政監査와 豫算審議에 수고하시는 長官님 이하 關係官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質疑者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與野委員님들이 한두 項目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豫算이 절대 부족하다고 여러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一般會計가 今年度에 1,128億에 비해서 불과 11%가 높은 1,253億으로서 이것은 一般財政分野 23兆에 비해서 0.54%로 지난해 0.59%보다 0.05%가 준 규모입니다. 특히 來年度에는 이 雇傭問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이어서 職業安定分野 특히 職業訓練에 더 力點을 두어야 할텐데 今年度 수준으로도 豫算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機關運營費는 59.4%가 늘어서 170億에서 270億이 되었습니다. 물론 絶對額으로 볼 때에는 이 機關運營費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豫算을 앞으로 職業安定分野 職業訓練分野에 더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豫算當局者

들의 勞動分野에 이해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勞動部가 애를 많이 썼지만은 적극적으로 豫算鬭爭을 하지 못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해에 우리 韓光玉委員께서도 豫決委에 참여하시고 計數調整小委까지 참여하시서 昨年 一般財政 규모가 7,000億이 減額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勞動部豫算이 增額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존경하는 우리 金令培委員長님이나 與野委員들에게 建議 말씀드린 것은 제가 11代 12代 13代 決算에 참여해서 計數調整에 계속 참여를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대개 國會에서는 政府가 내놓은 豫算案을 國民負擔輕減이라는 次元에서 많은 額數가 削減이 됩니다. 지난 해에는 7,000億 규모가 削減이 되었고 今年度에는 野團에서 1兆5,000億을 削減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金額이 마지막 計數調整過程에서 削減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대개 決算計數調整小委에 가면 16個 常委에서 削減分은 받아들여집니다. 거의 全額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減하다 보니까 各 常任委에서 삭감된 것은 감사하게 全額을 받아드리는데 增額分은 原則의으로 무효가 됩니다. 왜냐 하면 全體豫算規模가 削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自體調整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削減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增額分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削減分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削減되었겠다 그래서입니다.

例年の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실하게 많은 削減을 해온 常任委員會는 손해를 보고 적당히 增額을 많이 해요. 常任委員會 所管部處는 豫算審議過程에서 덕을 본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내일 小委員會에 참여하는 분이나 또 모래 議決할 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3兆의 1%에 해당하는 2,300億정도는 勞動部 豫算에 計上되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人口가 20%인 農漁村을 위해서 向後 4年間 16兆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都市에도 200萬戶 建設을 위해서 엄청난 金額이 투입됩니다마는 1千萬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해서는 지금 勤勞所得稅가 高級自由職業人 또는 資產所得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 많은 豫算이 策

定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政府豫算이 나왔기 때문에 勞動部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일 計數調整小委에서 가급적 削減을 하지말고 많은 분야로 增額을 해서 또 우리 勞動委員會에서 우리 존경하는 李仁濟委員이나 金炳龍委員 李康熙委員 盧武鉉委員 참여하시니까 많이 鬭爭해 주십사 하는 建議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상으로 質疑를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光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盧武鉉委員 質疑하십시오.

○盧武鉉委員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趙澈權씨가 옛날에 長官하시던 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85年2월에 오셔가지고 86年7월에 그만 두셨습니까.

○盧武鉉委員 그 期間동안의 勞動政策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職業訓練管理公團 人件費 5% 增額하는 것으로 해서 豫算編成되었습니까? 이것은 引上分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그것이 引上分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럼 다른 公務員들은 引上分이 어떻게 됩니까? 90年度 人件費가 策定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職業訓練管理公團 부분에는 25% 引上 增額要求를 했는데 經濟企劃院 5%로 했지 않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그것은 公務員은 俸給이 來年度에 9%가 引上되는 것으로 策定되어 있고 職業訓練管理公團은 政府投資機關에 共通的으로 5%만 일단 引上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結果의으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職業訓練管理公團의 業務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從事하는 勤務者의 士氣가 勤務의 品質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고 職業性格이 그런 것 같거든요. 어디든지 士氣가 중요하겠지만요. 그런데 年金管理公團이나 國立公園管理公團 環境管理公團 이런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는데 원만히

넘어가집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그 문제는 今年末이나 來年度면 各 政府投資機關에서 組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交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상으로 上向調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政府投資機關 全體의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제가 묻는 것은 5%라든지 一律의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基本的으로 國會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의 맨 마지막에 표로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職業訓練管理公團의 給與를 100으로 보았을 때 產業安全公團이 133이고 環境管理公團이 129고 年金管理公團이 132고 國立公團管理公團이 123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一律的으로 어떤 引上幅이나 이런 것은 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봄에 賃金引上 투쟁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지가 않았어요.

使用者는 決定權이 없다 政府는 當事者가 아니다 이렇게 쪽 해왔는데... 醫療保險組合은 紛糾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계속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또한 對話相對者가 없는데 豫算의 편성과 책정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 職業訓練管理公團의 급여라는 것은 자기들보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訓練公團이 가다가 서버릴 것 같아요. 器機도 새로 만들어 오고 장비도 안 들어오고 人件費는 남들보다 30%이상 낮고... 그러면서 새로 事業 벌인다고 여기 10億 저기 몇億이렇게 쪽 발라가지고 도저히 남들할 수 없어요.

經濟企劃院에서 저런 豫算은 주고 이런 豫算을 안 준다는 얘기지요? 勞動部가 나쁜 점은 勞使和合教育한다면 돈 주고 이것은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問題點은 처음 策定할 때 다른 機關보다 낮게 策定되어서 그래서 같은 비율로 올라가다 보니까 率만

가지고는 絶對金額에서 점점 差異가 나게 됩니다.

○**盧武鉉委員** 82年 設立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是正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하여튼 勞動部는 窺발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여기서 더 할 문제는 아닌데 함께 인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醫療保險組合이 11월에 罷業에 들어가면 政府計劃은 代替人力을 전부 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그런 計劃으로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勞動爭議調整法上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合法 不法을 가지고 앞으로 訓練管理公團도 爭議가 생기면 理事長은 나는 權限이 없다 豫算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政府는 法律上 當事者가 아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罷業하게 되면 不法이다 代替人力投入 등등... 年金公團問題와 똑같은데 이런 상태로 두고...

○**勞動部次官 鄭東佑** 82年 발족할 때에 대해서 企劃室長의 報告와 같이 다른 政府出捐機關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런데 늘 經濟企劃院에서 豫算을 줄 때 같은 비율로 주니까 절대액이 낮으니까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 限定되어서 수준이 낮아 昨年에 訓練公團의 賃金을 올리도록 해서 다른 不用額에서 올려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處遇改善이 조금 되었는데 今年에도 一律的으로 出捐機關들이 5%이지만 來年度 다른 豫算에서 殘餘分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轉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方法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해서 3·4年 4·5年해서 다른 公團의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2·3年間の 年次計劃이라도 나오고 그런 것이... 물론 國會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아주 심각하겠는 데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委員님들께서 轉用해

가지고 補填해 주시지 마시고 增額을 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진짜 增額을 붙여보고 全體國會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來年度에는 부득이 가서 罷業을 선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式으로 해놓고 年金管理公團도 罷業이 不法이다 合法이다... 똑같이 政府에서 시험쳐라 해서 公團 여기저기 갔는데 대우를 전부 다르게 만들어 놓고 부당하니까 爭議가 發生할 수밖에 없지요.

“너희들 하면 不法이야! 잡아넣을 것이다.” 그것이 勞使協調입니까? 이것이 合法的으로 勞使紛糾를 合法的인 해결로 檢討해 나가는 政府의 施策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合理性에 있어서 실효력을 가지고 정당성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못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合法 不法 또 그렇게 못하면 잡아넣는다 또 罷業하면 不法罷業이고 또 끌어내라고 해서 저항하면 전부 暴力罪로 잡아넣고...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質疑를 종결하겠습니다. 委員長으로서 豫算案審査小委員會 委員들에게 부탁드립니다.

本 豫算案에 대해서 오늘 質疑過程에서 지적된 모든 事項들을 綜合해서 더욱 면밀하게 심도있는 審査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活動期間은 내일 하루가 됩니다. 11月2日 다시 말하면 모레는 全體會議에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44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李 康 熙	李 台 燮
鄭 宗 澤	李 相 洙	李 協 勳
韓 光 玉	金 在 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委員아닌出席議員

張 慶 宇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錢 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變 億
立 法 審 議 官	崔 炳	億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崔 永	喆
-----------	-----	---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鄭 東	佑
企劃管理室長	金 昶	池
勞 政 局 長	金 具	春
勤勞基準局長	金 然	昭
產業安全局長	金 尹	龍
職業安定局長	孫 錫	春
職業訓練局長	孫 元	植
勞動保險局長	徐 相	善
	曹 舜	文

○政府側參席者

勞 動 部		
勞使指導官	金 在	英
婦女指導官	金 松	子